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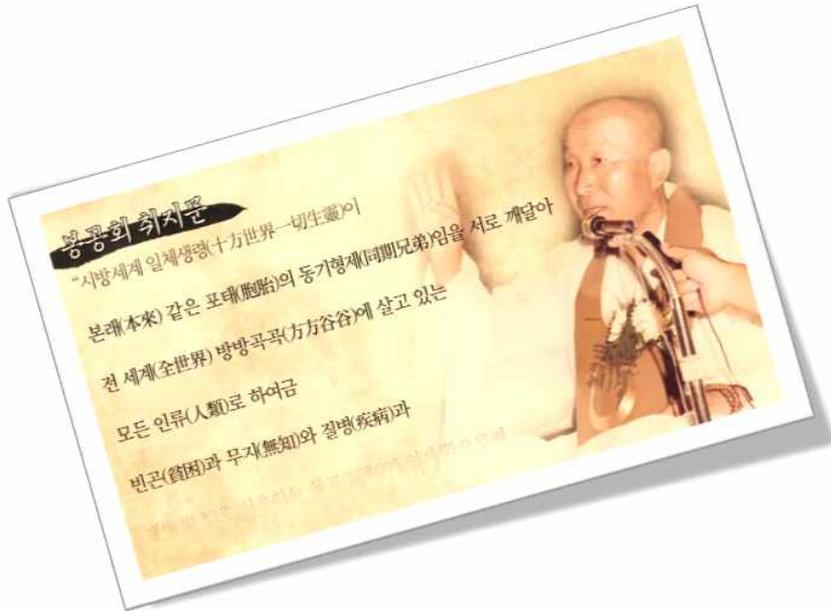




## 제6차 봉공학술대회

# 원불교 봉공의 재조명 I

-가톨릭 · 불교 · 원불교의 만남-



### YouTube ‘원불교봉공회’채널 실시간 생중계

- ▶ 일 시 : 2023년(원기108) 12월 8일(금) 13시30분~17시30분
- ▶ 장 소 :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3층 제3회의실
- ▶ 주 최 : 원불교 중앙봉공회 | 원불교 교정원 공익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 ▶ 주 관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 후 원 : 원광대학교 | 원불교신문사 | 원음방송





## 제6차 봉공학술대회

### ▶ 학술대회 일정

2023년(원기108) 12월 8일(목)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3층 제3회의실

시 간	주 제	발 표	진행
13:30~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사 박성태 _원광대 총장·원불교사상연구원 원장</li> <li>▶ 환 영 사 문수영 _원불교 교정원 공익복지부장</li> <li>▶ 감사인사 전시경 _원불교 중앙봉공회장</li> </ul>		
13:5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조강연 원불교의 전 교도 참여 봉공 전략</li> </ul>	윤덕균 _한양대	이주연 _원불교사상연구원
14: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발표1 서용스님의 참사람결사와 자비실천</li> </ul>	오종만(금강스님) _중앙승가대	
15:0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발표2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돌봄의 개념 :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li> </ul>	차명희 _서강대	
15:30~15:50	휴 식		
15:50~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발표3 봉공의 미래, 교육에서 찾다</li> </ul>	허 석 _원광대	염승준 _원광대
16:20~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발표4 4대를 향한 봉공과 봉공회</li> </ul>	강명권 _중앙봉공회	
16:50~17:00	휴 식		
17:00~17:30	▶종합토론 및 총평   좌장 : 오세영 _원광대		

## 개회사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제6차 봉공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원불교 중앙봉공회, 원불교 교정원 공익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원불교신문과 원음방송, 어려운 여건 아래 오늘 발표 준비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교수님들과 발표자 여러분, 특히 기조강연을 준비해주신 도산 윤덕균 교수님, 좌장을 맡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오세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불교에서 봉공은 무아봉공의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무아봉공의 원형은 구인선진께서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천의의 감동과 법계인증을 받았던 법인성사에서 발견됩니다. ‘나’라는 상을 벗어나서 사생(四生)을 한 몸으로, 그리고 지방삼계를 한집안으로 삼는 무아봉공 정신은 원불교의 창립정신이자, 낙원세계 건설의 원동력입니다. 나아가 대중사님의 일원대도와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를 바탕으로 대산종사님이 제시하신 사대봉공, 즉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동포의 무지, 질병, 빈곤을 퇴치하려는 정신은 원불교 봉공회가 지향하고 있는 대사회적 역할입니다.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개인이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립적으로 개별적 힘을 발휘하는 핵개인화 시대가 되었음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이 학술대회는 개인의 노력으로만이 아닌, 공동체가 같이 함께 실천하여 조성할 수 있는 봉공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웃종교와 원불교가 함께 지향하는 자비와 돌봄, 봉공의 정신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톨릭과 불교, 그리고 원불교가 성립의 배경에서부터 교리이념, 목적하는 바를 약간씩 달리할지라도, 개인의 이기심,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상호이해와 협력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덧붙여 이번 학술대회는 봉공의 정신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장 및 심화하고, 이후 나아갈 방향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발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봉공의 사상적·실천적 확장 및 정립에 보다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기 108년(2023) 12월 8일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

## 환영사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다음연도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원불교중앙봉공회가 일원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니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대전환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이전과 이후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전환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의 안보 및 경제 질서 역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의 경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각 종교가 성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5차 학술대회까지는 봉공의 이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원불교 봉공의 재조명 I - 가톨릭·불교·원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는 대전환, 특히 변화하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각 종교의 본질이 드러나고 시대를 향도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원불교중앙봉공회,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그리고 발표를 맡아 주신 윤덕균 교수님, 금강 스님, 차명희 교수님, 허석 교무님, 강명권 교무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오세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각 교구 봉공회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원불교중앙봉공회가 원불교 4대를 시작하는 시기에 봉공(奉公)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실천하여 나를 놓고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원기108년(2023년) 12월 8일

원불교공익복지부장 문수영

## 감사인사

제6차 봉공학술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을 내어주신 박성태 총장님, 문수영 공익복지부장님께 특별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한양대 윤덕균 교수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실 네 분, 금강 스님, 차명희 교수님, 허석 교수님, 강명권 교무님과 좌장을 맡아 수고해주실 오세영 교수님께도 미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봉공학술대회는 원기102년 원불교중앙봉공회 40주년을 기념하며 ‘봉공의 의미 재정립’, ‘4대 봉공회 등 봉공조직의 재정비’, ‘봉공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봉공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선정하고 10년간 이어갈 장기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해 <원불교 2세기 봉공회 비전>을 주제로 행사를 출범한지 벌써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고, 아쉬운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행사를 맞이하며 반환점을 돌아 정점을 향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원불교 교단 제4대 제1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톨릭, 불교, 원불교의 만남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봉공회의 나아가갈 길이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지리라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과 행사를 주관해주신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준비에 도움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크나큰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보은봉공의 실천자이신 봉공회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원불교 봉공회의 발전과 본 학술대회 성과, 미래의 10년을 위해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기108년(2023) 12월 8일

원불교중앙봉공회장 전 시 경



제6차 봉공학술대회  
**원불교 봉공의 재조명 I**  
-가톨릭·불교·원불교의 만남-  
2023.12.08.<sup>코</sup> 13:30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제3회의실(3F)



| 목 차 |

- 개 회 사 ... 6
- 환 영 사 ... 8
- 감사인사 ... 10

【기 조 강 연】 원불교의 전 교도 참여 봉공 전략 ..... 윤덕균 ... 15

【제1주제발표】 서옹스님의 참사람결사와 자비실천 ..... 오종만(금강스님) ... 51

【제2주제발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돌봄의 개념  
: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 차명희 ... 67

【제3주제발표】 봉공의 미래, 교육에서 찾다 ..... 허 석 ... 87

【제4주제발표】 4대를 향한 봉공과 봉공회 ..... 강명권 ... 95



기조강연

## 원불교의 전 교도 참여 봉공 전략

도산 윤덕균(법명: 광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요약문 :** 원불교의 봉공은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대도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를 바탕으로 인류의 빈곤·무지·질병·재해로부터 벗어나 평화 안락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대산종사는 ①출가 봉공회 ②재가 봉공회 ③국가 봉공회 ④세계 봉공회 등 4대 봉공체제로 구성하였다. 대산종사는 4대 봉공 체제는 시방세계 일체생령이 본래 같은 포태의 동기형제임을 서로 깨달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재해로 신음하는 동포가 없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두루 평화롭고 넉넉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사대봉공회취지문에서 밝히고 있다. 4대 봉공회의 성격에 대해서 (1) 출가봉공회: ① 전무출신 본인에 대한 원호, ② 전무출신 사가에 대한 원호, (2) 재가봉공회: 재가교도에 대한 원호, (3) 국가봉공회: 국가민족에 대한 원호, (4) 세계봉공회: 세계인류에 대한 원호로서 원불교가 추구하는 평등주의, 전체주의, 세계주의, 전 생령주의로 구성된 일원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출가봉공회가 추구하는 전무 출신의 본인과 가족에 대한 원호와 재가 교도에 대한 원호는 원불교의 공도자 숭배 항목의 생활 평등 조항이다. 국가민족에 대한 원호는 전체주의의 항목이고, 세계 인류에 대한 원호는 세계주의의 실천 항목이다. 여기서 전생령주의를 실천할 전생령봉공회가 누락되어 있다.

원불교 봉공의 SWOT 분석을 해보면 원불교는 강소종교로 타종교의 봉공과 달리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약점은 물질 가난, 인재 가난, 브랜드 가난으로 요약된다. 반면 강점은 좋은 이미지, 해외 교당, 국악, 한의학, 대안학교 등 비교우위와 더불어 교리의 포용성, 삼동윤리 등이 있다. 위협으로는 저출산에 의한 교도 감소, 교도들의 봉공 정신 감퇴, 수입원 한계, 봉공 자원 고갈 등이며 기회 요소는 지기시대의 도래, 팬데믹의 일상화, IT, 인공지능 등 비대면 봉공 기회의 확장이다. 이를 토대로 강소종교로서의 원불교 봉공의 전 교도의 봉공요원화 10대 전략을 제시한다.

**전 교도의 봉공요원화 10대 전략:** ① 전교도의 매트릭스 조직화: 강소 종교로서 원불교 봉공은 전교도의 봉공 요원화의 과제를 가진다. 전교도가 참여하는 봉공이 되기 위해서는 전 교도의 봉공 마인드화가 필수이며 이를 매트릭스 조직화해야 한다. ② 대아 봉공의 실천: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내가 없는 봉공(무아봉공)에서 더 큰 나를 찾는 대아 봉공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③ 기초 봉공의 내실화: 강소종교로서 허례허식을 통한 보여주는 봉공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봉공을 추진함이 요구된다. ④ 재능기부 봉공의 활성화: 불교의 지혜 보시에 해당하는 재능기부를 재가 교도들을 대상으로 활성화한다. ⑤ 무재철시 봉공의 생활화: 액티브시니어 중심의 봉공으로 말동무 등 불교의 무재철시 봉공을 실천한다. ⑥ 봉공 요원의 전문화: 전교도의 봉공 요원화와 함께 이들을 제대로 이끌 전문 요원의 양성이 절대적이다. ⑦ 봉공의 과학화: 이를 위해서 봉공의 과학화가 절대적이다.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과학화는 봉공의 생산성을 배가시킬 것이다. ⑧ 봉공의 시스템화: 최근의 IT를 활용하여 비대면 봉공의 활성화가 절대적 과제이다. 오프라인에서 원불교는 3대 종교와 경쟁력이 없다. 그러나 비대면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다. ⑨ 일원주의 봉공: 원불교 봉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원주의의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원주의는 평등주의, 세계주의, 전 생령주의로 요약된다. 특히 새로운 개념의 전 생령주의 봉공을 위한 교단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⑩ 교법의 사회구현: 일원주의의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현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 차 례

### I. 21세기 봉공의 시대정신

1. 사필귀정이 만드는 인간의 고해
2. 고해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인과론
3. 인과론에서의 봉공의 역할
4. MZ 지향적 봉공의 새로운 정의

### II. 전원 참가를 위한 봉공의 새로운 개념 정립

1. 대아 봉공
2. 재능기부 봉공

### III. 원불교 봉공의 강소 차별화 전략

1. 원불교 봉공의 과거(as is)
2. 원불교 봉공의 SWOT 분석
3. 원불교 봉공의 10대 강소 차별화 전략(to be)

### IV. 5대 봉공회 세부 조직의 전원 참가 전략

1. 원불교 봉공의 톱니바퀴 조직
2. 전 교도의 전원 참가 봉공
3. 교당의 기초 봉공
4. 교구의 전문·시스템 봉공
5. 교단의 일원 주의 봉공

### V. 원불교의 전교도 참여 봉공 전략의 과제와 결언

## I. 21세기 봉공의 시대정신

### 1.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만드는 인간의 고해

모든 종교는 ‘만사가 정당하게 귀결된다.’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 틀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유대교는 기원전 15세기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축성에 동원된 자신들의 노예 생활에 대한 사필귀정의 의문에서, 역시 브라만교는 천시 받아야 하는 하층 카스트들의 사필귀정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정산종사는 법훈편 26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보다는 ‘정할 정(定)’자 사필귀정(事必歸定)이 옳다고 말씀하신다. 만사가 정당하게 귀결되기보다는 정해진 대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결과를 누가 정하느냐

냐에 따라 불교계와 기독교계로 갈라진다. 기독교계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즉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불교계는 인간의 삶이나 행위를 주로 행위자 자신 전생의 업에 의한 동기론으로 설명한다. 이것이 인과론이다. 물론 기독교(갈라디아서 6:7)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를 말한다.

## 2. 고해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인과론

### 1) 브라만교의 인과론

브라만교의 인과론은 카스트 제도의 설득 논리에서 나왔다. B.C. 20세기경 인도를 정복한 아리안족은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 상류 카스트인 아리안족은 피지배 민족인 하층 카스트에 대한 통치 수단의 설득 논리로서 “현생의 고해는 전생의 업보”라고 하는 숙명론적 인과론을 전개했다. 그러므로 하층 카스트의 고해를 자업자득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득 논리였다.



### 2) 불교의 인과론

불교의 인과론은 브라만의 숙명적 인과론에 반해서 “현생의 선업에 의하여 후생에는 하층 카스트도 상층 카스트로 진화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진화론적 인과론이다. 『삼세인과경』에 의하면 모든 인(因)은 연(緣)을 매개로 하여 과(果)를 맺게 되고, 모든 과는 보(報)를 낳는다. 보는 다시 인에 연속되고, 일체의 존재는 인과의 계열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라

도 독존하여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일체의 우연도 없다. 정업은 난면이다. 다만, 인과응보의 시차가 있을 뿐인데, 삼세인과경은 현생의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의 시차에 따라 첫째, 인과응보를 현생에서 받는 순현업(順現業), 둘째, 다음 생에서 받는 순생업(順生業), 셋째, 다음 생 이후에서 받는 순후업(順後業)의 삼시업으로 대별한다.



이 삼시업의 전형적인 사례가 월명암 주지 이야기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포수에 쫓기는 멧돼지를 숨겨주었다. 멧돼지를 찾는 포수에게 전생 일을 들려주었다.

“한 지관이 굶어 죽게 되어, 벌초하는 총각에게 탁발을 청하였다. 그러자 총각은 밥 대신 지관을 발길로 차 죽였다. 지관은 죽어 독사가 되어 총각을 물어 죽였다. 독사에게 물려 죽은 총각은 멧돼지가 되었다. 멧돼지는 뱀이라는 뱀은 모두 잡아먹었다. 그 후 독사는 죽어 사냥꾼이 되었고 멧돼지만 보면 죽었다. 이것이 당신과 멧돼지의 전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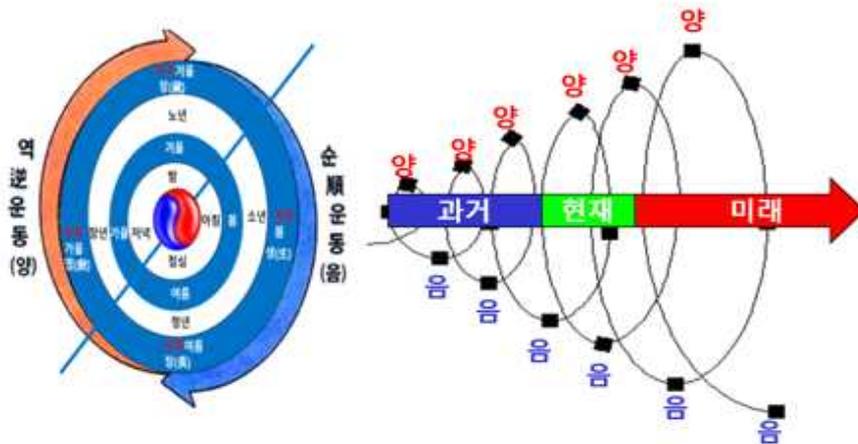
이 삼시업의 전형적인 예에서 인과의 반복성이나 정업의 난면성은 이해가 되는 데 지관이 독사가 되고 사냥꾼으로 변신하는 과정과 총각이 멧돼지로 태어나는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답이 원불교의 인과론이다.

### 3) 원불교적 인과론

원불교적 인과론도 근본적으로 불교의 인과론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원불교적 인과론은 ① 음양 상승의 인과론 ② 현순업 중심 인과론 ③ 찰나 인과론으로 요약된다.

① 음양 상승의 인과론 : 불교의 인과론에 유교의 『주역』, 도교의 『음부경』의 음양 상승의 도가 합해진 인과론이다. 『대종경』 인과품 1에서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에 변함없는 상도니라”라고 밝혔다. 곧 원불교의 인과론은 『정전』 참회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인과응보를 받고 악행 자는 후일에 상극의 인과응보를 받는 음양 상승의 인과론이다. 음양 상승의 도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며 흘러간다. 하루도 밤과 낮, 1년도 춘하추동, 일생도 생로병사 등이다. 우주도 이처럼 춘하추동이 존재한다. 그때마다 양과 음, 갑과 을, 강자와 약자가 순환한다. 예를 들면, A가 양지에 있을 때 갑으로서 갑질을 했다. 그런데, 음양 상승의 도에 따라 양지가 음지가 되면, A는 을이 되고 갑질에 대한 인과응보를 받는다. 이것이 원불교의 음양 상승의 인과론이다.

### 원불교의 음양상승 인과론



② 순현업 중점 인과론 : 불교의 인과가 순생업과 순후업의 관점이라면 원불교의 인과는 당대에 인과가 성립되는 순현업에 중점을 둔 인과다. 소태산대종사는 인과품 31과 33에서 현대는 순현업의 시대임을 예시한다. 원불교에서 소중히 하는 인과는 먼 피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 이 사람, 이 일, 이 하루, 이 회상 등 차안의 인과다.

③ **찰나 인과론** : 정산종사(「한 울안 한 이치에」 제1편 법문과 일화 2. 심은 대로 거둠 3절)는 찰나 인과론을 말씀하신다.

“인과를 전생, 이생, 내생의 삼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보아야 한다. 찰나 전은 과거요, 찰나는 현재요, 찰나 후는 미래다. 벽에다 공을 던지면 바로 자기에게 돌아오고 하늘에 침을 뱉으면 즉시 제 얼굴에 떨어지는데 인과도 이와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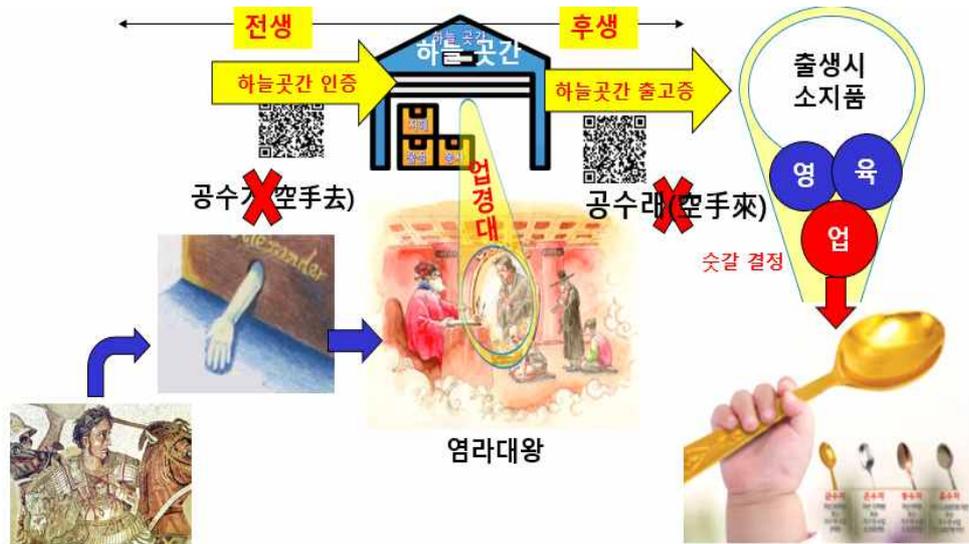
찰나 인과론은 원불교의 현대적 감각을 입증한다. 지금은 바로 초스피드 시대이다. 현재의 광속시대는 과거의 음속 시대보다 1백만 배 빠르다. 1980년까지 구리선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초당 1쪽 정도를 전달했다. 지금은 광섬유 디지털 신호로 초당 9만 권의 백과사전을 전송한다. 이러한 초스피드 시대에는 인과도 찰나적일 수밖에 없다. 찰나 찰나가 인과의 연속이다. 찰나 찰나에 혈심을 기울려야 하는 이유다. 부처님도 『사십이장경』38에서 “사람의 목숨이 숨 한번 쉬는 사이에 있다.” 하시며 찰나 인과의 가능성을 언급하셨다.

### 3. 인과론에서의 봉공의 역할

정산종사는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14 생사편 9에서,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수래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라 하였다. 사후 인간은 업경대를 통해서 하늘 공간에 쌓인 재고에 따라서 탄생 시 수저의 색깔이 달라진다.



### (1) 하늘 곳간 교리

모든 종교가 하늘 곳간에 대한 교리를 내세우고 있다. 불교에서는 저승 곳간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늘 곳간보다는 하늘 창고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설화가 영암의 덕진교의 설화이다. 덕진교의 설화는 범산 이공전종사가 ‘대종사 사용하셨던 예화’를 말할 때 자주 소개하였다.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양산 김중목의 『인과 세계』에서 인용한다.

신라시대 영광 법성포에 관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천 석이나 짓는 부자였지만 어찌나 성질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던지 혀를 내두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억울한 소작인들은 “죽어서 구렁이나 되라, 지옥에나 떨어져라.”라고 욕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관철이 시감을 앓다가 죽게 되었다. 저승에 온 관철은 동자의 뒤를 따라 재 판정에 갔다. 관철을 본 염라대왕께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느냐, 어서 나갔다가 8년 후에 오너라.”고 하였다. 관철이 집에 갈 여비를 걱정하니 염라대왕이 ‘관철지고’에 가면 있다고 했다. 관철지고에는 주춧돌 세 개와 벗짚 다섯 다발만이 있었다. 주춧돌 세 개는 사촌이 집을 지을 때 줌 도와 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하자 벗짚 다섯 다발은 이웃 집 가난한 여자가 어린애를 낳고 굶주리고 있을 때 주었다. 옆의 창고를 보니 ‘덕진지고’라 쓰여 있는데 그 창고 안에는 금, 은, 돈, 식량 할 것 없이 가득 차 있었다. 덕진지고에서 돈을 빌려 죽은 지 이틀만에 살아났다. 꿈만 같아 이상하였으나 너무나 역력하여 덕진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았다. 며칠이 지난 후 전주 어느 산모퉁이에 주막이 있어서 술과 음식을 청했다. 주인이 “덕진아 손님 왔다.” 하면서 덕진이를 부르지 않는가? 귀가 번쩍하여

덕진이를 보니 지지리도 못생긴 노처녀였다. 이윽고 밥상 차려오는 것을 보니 깨끗하고 정성스러웠다. 식사를 끝낸 관철은 덕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손님들이 “덕진이 있소.”라고 하며 찾아오면 마치 친오빠나 친동생같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손님을 대접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벗어놓은 감발(양말이 없는 때라 발을 감는 베)을 깨끗하게 빨아서 여기저기 널었다가 새벽길을 떠나는 손님들이 신고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덕진지고에 재물이 넘치는 이유를 알았다. 관철은 덕진이에게 저승 이야기를 하면서 덕진이 창고에서 빌려왔던 돈을 내놓았다 그러자 덕진이는 극구 사양했다. 대신에 덕진이는 다리가 없어 마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관철에게 다리를 놓아 달라고 부탁했다. 마을 사람들은 완성된 다리를 덕진 아씨의 이름을 따서 ‘덕진 다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 4. MZ 지향적 봉공의 신 정의

##### 1) 기존 봉공의 정의

출처	정의	비고
원불교 대사전	개인보다 전체 사회를 위한 것	사전
국어 대사전	나라나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함	
창립 정신	1. 이소성대: 저축조합 운동으로 금주 금연등 절약을 통한 삶의 안식과 건전한 삶의 길 제공 2. 일심합력: 방언 공사로 생산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 3. 사무여한: 세상과 생명을 위하는 길이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자세	이념 연구
교리	1. 사대강령의 무아봉공: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 2. 일상수행행요법 9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단체 연구
단체 성격	봉사(사회봉사 또는 자원봉사)	
사대 봉공 취지문	대중사께서 밝혀주신 일원대도에 바탕하여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 하신 정산종사의 최후 유촉을 받들어 시방세계 일체생령이 본래 같은 포태의 동기 형제임을 서로 깨달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재해로 신음하는 동포가 없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두루 평화롭고 넉넉하고 슬기롭고 명량하게 살기 위하여	법문
회칙이나 규정	일원대도와 삼동윤리의 정신 아래 재가, 출가, 국가, 세계 모든 인류의 영과 육의 빈곤, 무지, 질병 및 재해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정신, 육신, 물질로 봉공함	규정 검토

##### 2) 『두산백과사전』의 정의

봉공(奉公)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공익을 위하여 힘쓴다’라는 의미이다.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봉공이라고 할 수 있다. 봉공은 보통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힘써 일한다는 의미의 ‘멸사봉공(滅私奉公)’이나 ‘극기봉공(克己奉公)’의 사자성어로 활용된다. 봉공은 특히 공직자에게 강조되는 직업의식이다. 공직자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일을 맡아보는 직책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 발전과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수준의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직자는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이와 함께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봉공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3) 『원불교 대사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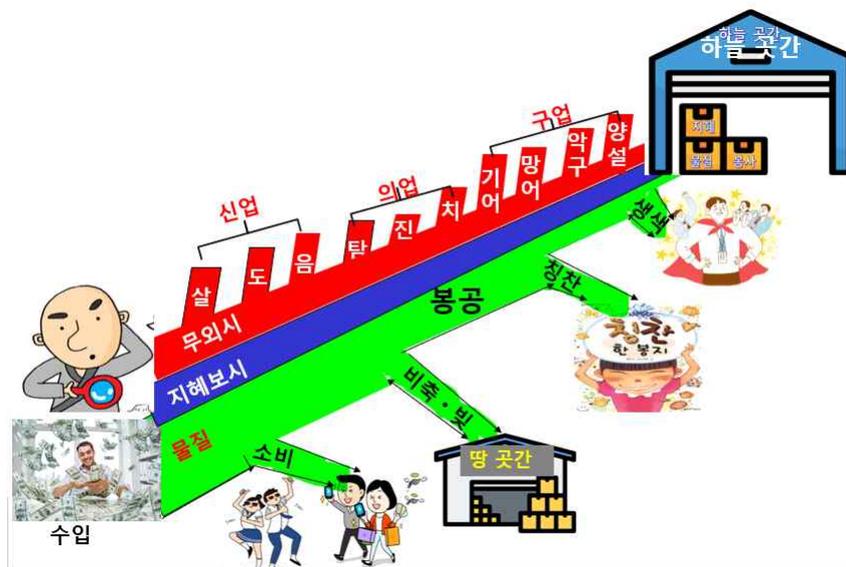
개인보다 전체 사회를 위하는 것, 곧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봉공이라는 말은 무아봉공, 헌신 봉공, 멸사봉공, 호법 봉공, 등의 용어로 법문이나 교서에 나타나는데 앞의 세 단어는 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호법 봉공 또한 법을 수호하고 공 또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제생의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물질과 정신과 육신을 다 바쳐 수호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봉공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들 가운데, 무아봉공이라는 말이 진리에 바탕한 수행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 곧 일원의 진리와 사은의 이치를 깨달아 원래 나라는 것이 없으며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가 사은의 공물임을 알아 보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임을 자각하고 보면 무아 봉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아봉공은 교리의 사대 강령 마지막 조항으로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결론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다. 원불교 신앙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아봉공인을 많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무아봉공 인이 많아야 사회나 세계가 평화롭게 되고 원불교가 실현하고자 하는 낙원 곧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와 세상의 병과 중생의 고통이 자기 본위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봉공의 정신을 기르지 않으면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반목과 불화와 전쟁을 벗어날 수 없다. 소태산 대종사는 제생의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무아봉공의 정신을 강조했던바, 초기 구인 제자들이 방언 공사에 참여하면서 올린 서약에서부터 법인성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온 것으로 원불교창립의 중요한 이념이 되었다.

### 4) 인과론과 연계한 새로운 봉공 정의

원불교에서는 『대산종사법어』 제11 교훈편 3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루하루 하늘 곳곳에 쌓인 죄복을 잘 살피서 복락이 얼마나 쌓였고 죄업이 얼마나 가벼워졌는가를 늘

행기며 살아야 하느니라.”라고 하늘 공간을 언급하신다.

『성경』에는 하늘 창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인간이 봉공하면 하늘 공간에 비축이 된다. 물질 보시, 지혜 보시, 무외시에 따라 각각 비축된다. 여기서 봉공은 하늘 공간에 비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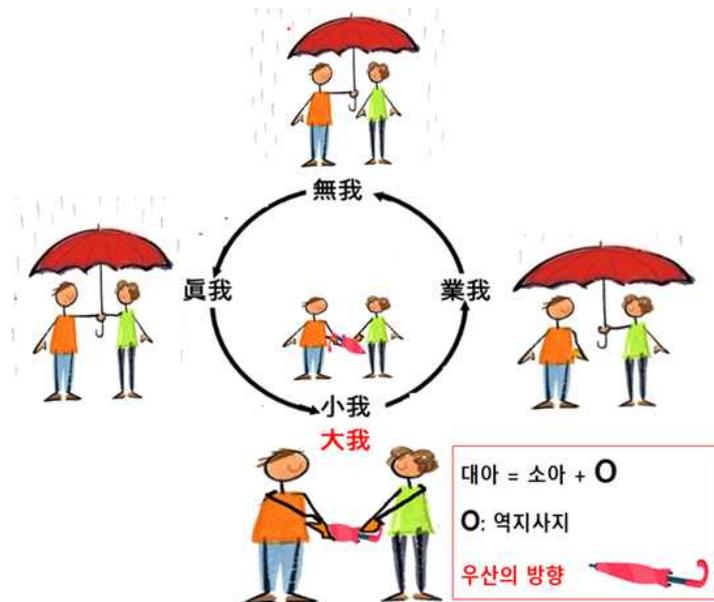
## II. 전원참가를 위한 봉공의 새로운 개념 정립

### 1. 대아 봉공

불교의 숭산대선사는 한국 선불교를 해외에 퍼뜨린 위대한 포교사다. 스님께서서는 외국인 제자들을 위해 화계사에 국제선원과 계룡산에 무상사를 개원하셨으며, 1966년부터 30년간 일본, 홍콩, 미국, 캐나다 토론토, 폴란드 바르샤바, 영국 런던, 스페인 팔마데마요르카, 브라질,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등 세계 30여 개국 120여 군데에 홍법원과 선원 개설하여 한국 불교의 선을 세계에 전파했다. 대표적인 외국인 제자로 대봉, 우봉, 현각, 무량, 무상, 해량, 무심, 청안 스님 등이다. ‘오직 모를 뿐’,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는 유명한 법문으로 달

라이 라마, 틱낫한, 캄보디아 종정 마하 고사난다와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불렸다.

승산은 자아의 변천이 일원상을 따라 순환함을 보이셨다. 인간은 나쁜인 놈 즉 ‘소아’로 태어난다. ‘소아’인 나는 무엇을 해도, 업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나쁜 일을 하면 당연히 업력이 쌓인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해도 생색을 내기 때문에, 업력을 증가시키는 ‘업아’가 된다. 여기서 업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함이 없음이 강조되며 ‘무아’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무아의 경지는 ‘나’ 없으며 ‘나’가 드러나는 ‘진아’로 발전한다. 진실 된 나 즉 ‘진아’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는 것이 ‘대아’이다. 그런데 이 순환도의 핵심은 ‘소아’와 ‘대아’의 위치가 일치한다. ‘소아’와 ‘대아’는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면에서는 공통이다. 그러나 소아는 직접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지만, 대아는 한 바퀴 돌려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대아 = 소아 + 0 즉, 소아에 일원상을 더하면 대아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승산스님의 일원상 화두는 화계사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승산대종사 묘탑의 원형에서 찾을 수 있다. 원형은 승산스님의 은사이신 고봉대선사의 추모탑에서도 발견된다.



『대종경』 요훈품 21장에서 대종사께서는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의 이익이 되나니라.”라고 하여 소아와 대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셨다. 이러한 자아의 분류에 따

라서 봉공의 종류가 달라진다. 또한 대아 봉공에 대해서는 소태산(『대종경 선외록』11. 제생의세장 1절)도 “큰 나를 발견하여서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고 너른 세계 위하는 것이 내 집안 위하는 것이 되는 줄을 알게 하면 그 이기주의 병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계신다.

- (1) 소아 봉공: 가면(페르소나)봉공
- (2) 업아 봉공: 남을 위한 봉공
- (3) 무아 봉공: 모두를 위한 봉공
- (4) 진아 봉공: 참 나를 위한 봉공
- (5) 대아 봉공: 큰 나를 위한 봉공

무아봉공은 원불교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네 가지 기본강령(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아봉공)의 하나로 뜻은 나를 없애고 공익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는 의미이다. 『정전』에서는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는 사상과 자유 방종 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써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개인 간이나 국가 간이나 모든 마찰과 불화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자유 방종한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모든 불화와 이기심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가장 깊은 뿌리는 ‘나’라는 상(我相)이다. 아상은 현재의 육신과 마음이 영원한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며 그 집착으로 인하여 오직 나만을 위하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 내 가족, 내 자녀만을 위하는 생각이다.

소태산은 상극의 묵은 시대를 청산하고 상생 상화의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 9인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했고, 나아가 목숨까지 바치도록 했으며, 사무여한의 기도 정성은 마침내 백지혈인(白指血印)의 이적으로 나타났다. 원불교창립은 바로 9인 선진이 보여준 사무여한의 대희생심과 대봉공심으로 비롯되었고 이후 이는 전무 출신 기본정신이 되었다. 또한, 무아봉공의 정신은 화합 교단을 이루고 원불교가 지향하는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문명 시대에 무아봉공만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무아봉공의 궁극적 목적이 작은 나에 국집하는 이기심을 놓고 큰 나(大我) 또는 참나(眞我)를 이루는 데 있음에 착안하여 대아 봉공을 주창한다. 대아 봉공은 개인이나 내 가족만이 아니라 전 인류 더 나아가 전 생령이 함께 잘사는 낙원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신앙과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아봉공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 2. 재능기부 봉공

원불교의 봉공과 유사한 개념으로 불교에서는 ‘보시(布施, Dana)’를 쓴다. 불교의 보시는 현실사회 속에서 자비로써 작용하는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또한 불교의 보시는 사찰에 대한 각종 보시 외에도 의약품을 병자에게 주고, 배를 비치하고, 다리를 놓고, 도로 근처에 우물을 파는 등의 세간적인 선업이 모두 보시라는 관념으로 확대된다. 더 나아가서 보시는 자신의 깨달음이나 일체중생의 성불이라는 뜻으로 확대된다. 불교의 보시란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결실과 함께 구제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유정물을 구제해 준다는 이타의 서원에 근거한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떠나서는 올바른 보시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야에 입각한 보시는 주객이 분리된 입장에서 구축되는 의도가 아니라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불교의 보시는 재시(財施)와 법시(法施), 그리고 무외시(無畏施) 등 삼시로 대별된다. 첫째, 재시는 인색하고 탐욕한 생각을 버리고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어 구하러 온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보시다. 둘째, 법시는 중생에게 진리를 전하는 보시로 명예나 이익이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이익을 주기만을 염원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셋째, 무외시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 공포와 위험 앞에 있는 사람을 공포 속에서 구출해 내어 평화와 안전을 베풀어 주는 보시이다. 팔종시는 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수지시(隨至施), ② 재물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될 것을 걱정해서 차라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보시하는 포외시(怖畏施), ③ 먼저 보시를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에게 도로 보시하는 보은시(報恩施), ④ 지금 저에게 보시하고 다음에 그에게서 보시받기를 바라는 구보시(求報施), ⑤ 조상에게 배워서 보시하는 습선시(習先施), ⑥ 하늘에 나기를 바라는 보시하는 희천시(希天施), ⑦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보시하는 요명시(要名施), ⑧ 마음을 장엄하여 아끼는 마음을 없애고 정을 얻어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보시하는 위장엄심 등시(爲莊嚴心等施) 등이다.

불교의 보시에는 보시하는 이, 보시받는 이, 보시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삼륜상이 없어야 한다. 이 삼륜의 상을 마음에 두는 것을 유상보시(有相布施)라고 하는데 이는 참다운 보시가 아니다. 삼륜상을 없애고 무심에 주하여 행하는 보시를 청정하고 참된 보시라고 하는데, 이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고 하여 불교의 보시를 대변하는 보시다. 결국 무주상보시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베풀었다.”라는 자만심 없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베푸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마음에 걸림이 없고(무애) 머무름이 없는(무주) 원만한 보시를 무주상보시라고 한다.

### 3. 베스트 봉공의 벤치 마킹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말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전 세계 봉공인 가슴에 새길 교훈이다. 이 말의 주인공은 음성의 꽃동네를 만든 걸인 최귀동 베드로(1909~1990)의 말이다. 전 교도 참여의 원불교 봉공을 위해서 가능한 전 교도를 한국의 베스트 봉공을 벤치마킹하게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천주교의 음성 꽃동네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숙인,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가톨릭 계열 재단인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본원이 있으며, 이외에 수도권과 충북 곳곳, 해외 15개국 등 여러 국가에 복지시설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 꽃동네대학교와 꽃동네학교(특수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꽃동네의 설립은 1976년 오웅진 사도 요한 신부와 최귀동 베드로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최귀동은 자신이 걸인인 형편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는 밥을 얻어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사는 걸인들에게 나눠주었다. 그것을 당시 천주교 청주교구 무극성당 주임신부였던 오웅진 신부가 발견하여, ‘의지할 곳도 없고,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독지가로부터 땅을 기부 받아 꽃동네를 세웠다고 한다. 꽃동네의 위상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방한함으로 인정되었다.

최귀동은 무극천 다리 밑에서 40여 년 동안 얻어먹을 힘조차 없어 죽어가는 18명을 밥을 얻어다 먹여 살리던 중 1976년 9월 10일 무극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오웅진 신부와 만났다. 이후 동네 사람들에 의해 다리 밑에서 쫓겨나 용담산 밑에 움막을 치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 움막 삶의 현장을 목격한 오 신부는 주머니돈 1,300원을 몽땅 털어 시멘트 한 포대를 사서 손수 벽돌을 찍어 76년 10월 5일 교우들과 함께 기공식을 가진 후 76년 11월 15일 다섯 칸 부엌 다섯 칸 건물에 이들을 입주시킨다. 이를 시발로 꽃동네는 세계 봉공의 메카로 발전하게 된다. 1990년 1월 4일 최귀동은 지병인 혈압이 재발하여 인곡자애 병원에 모셔진다. 그 후 “인명은 하늘에 달려있어” 이 한마디를 조용히 남기고 떠났다. 사망 후 안구를 기증한다는 유서를 남겨 27세 젊은 청년이 눈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떠났다.

장례식은 1990년 1월 8일 3천여 명의 꽃동네 회원과 꽃동네 가족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청와대 김옥숙 영부인이 보낸 조화와 국무위원, 충청북도지사, 군수님이 보낸 조화 속에 묻혀 명복을 비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새겨진 바위 밑에 고이 안장되었다. 벤치마킹의 포인트는 ① 봉공은 여유가 있는 사

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② 봉공은 불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③ 봉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은혜이다.

꽃동네 봉공 체험의 제도화에는 우리 원불교의 정향승급의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심도 있는 연구과제이다. 타 종교의 벤치마킹이 어떻게 당교의 필수가 될 수 있겠느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교도의 봉공 요원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 III. 원불교 봉공의 강조 차별화 전략

#### 1. 원불교 봉공의 과거(as is)

원불교의 사대 봉공은 소태산대종사의 일원대도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를 바탕으로 인류의 빈곤·무지·질병·재해로부터 벗어나 평화 안락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대산 종사가 4개 분야의 봉공을 말한다. 이는 첫째, 출가 봉공회 둘째, 재가 봉공회 셋째, 국가 봉공회 넷째, 세계 봉공회 등 사대 봉공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산종사법문집』 제2집 제9부 행사 치사 사대 봉공회 취지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종사님께서 밝혀 주신 일원대도에 바탕하여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 세계 건설하자! 하신 정산 종사의 최후 유촉을 받들어 시방세계 일체 생령이 본래 같은 포태의 동기 형제임을 서로 깨달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재해로 신음하는 동포가 없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두루 평화롭고 넉넉하고 슬기롭고 명량하게 살기 위하여 다음의 사대 봉공회를 결성하고자 그 햇불을 드는 바이니, 전 세계의 나라 나라와 마을 마을의 모든 동포 형제는 다 같이 함께 공맹하고 대동 결연하여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하루속히 평등 원만한 세계를 이룩하는 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다음

- (1) 출가봉공회
  - ① 전무 출신 본인에 대한 원호
  - ② 전무 출신 사가에 대한 원호
- (2) 재가 봉공회: 재가교도에 대한 원호
- (3) 국가 봉공회: 국가 민족에 대한 원호
- (4) 세계 봉공회: 세계인류에 대한 원호.

사대 봉공의 분야는 원불교가 추구하는 평등주의, 전체주의, 세계주의, 전 생명주의로 구성된 일원 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출가 봉공회가 추구하는 전무 출신의 본인과 가족에 대한 원호와 재가 교도에 대한 원호는 원불교의 공도자 숭배 항목의 생활 평등 조항이다. 국가 민족에 대한 원호는 전체주의의 항목이고, 세계 인류에 대한 원호는 세계주의의 실현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우리 원불교 봉공 분야에 전생명주의를 실현하는 전 생명주의의 봉공 항목이 빠져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 2. 원불교 봉공의 SWOT 분석

원불교 봉공의 SWOT 분석을 해보면 원불교는 4대 종교라고 하지만, 나머지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 비교해서 그 교세가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원불교의 봉공이 타 종교의 봉공과 달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필요함을 말한다. 원불교 봉공의 절대적 약점은 물질 가난, 인재 가난, 브랜드 가난으로 요약된다. 반면 원불교 봉공의 강점은 좋은 이미지, 비교우위의 해외 교당, 국악, 한의학 비교우위, 대안학교 비교우위, 원불교 교리의 포용성, 삼동 윤리 등이다. 원불교 봉공의 위협 요소로는 저출산에 의한 교도 감소, 교도들의 봉공 정신 감퇴, 수입원 한계, 봉공 자원 고갈 등이며 원불교 봉공의 기회 요소는 지기의 시대 도래, 팬데믹의 일상화, IT, 인공지능 등 비대면 봉공 기회의 확장이다. 이에 원불교 봉공의 전략을 10대 강령으로 요약한다.

### 원불교 봉공의 SWOT 분석



### 3. 원불교 불공의 10대 차별화 전략(To Be)

원불교 불공의 10대 차별화 전략은 강소 종교로서 원불교가 일원 주의 낙원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방책이다. 일원주의는 즉, 평등주의, 전체주의, 세계주의, 전생명주의의 강령을 실천하려는 전략이다.

(1) 전 교도의 매트릭스 조직화 : 강소 종교로서 원불교 불공은 전 교도의 불공 요원화의 과제를 가진다. 전 교도가 참여하는 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전 교도의 불공 마인드화가 필수이며 이를 매트릭스 조직화해야 한다.

**1. 매트릭스 불공 조직**

	원불교 조직 계층			
	전교도 불공마인드화 대아불공	교당 기초불공 공등교화 불공	교구 전문불공 시스템불공	교단 일원주의 불공 교법의 사회구현
출가불공	○	○	○	○
재가불공	○	○	○	○
국가불공	○	○	○	○
세계불공	○	○	○	○
전생명불공	○	○	○	○

(2) 대아 불공의 실천: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내가 없는 불공(무아불공) 더 큰 나를 찾는 대아 불공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3) 기초 불공의 내실화: 강소 종교의 보이는 불공은 허례허식을 통한 보여주는 불공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불공을 추진함이 요구된다.

(4) 재능기부 불공의 활성화: 불교의 지혜 보시에 해당하는 재능기부를 재가 교도들을 대상으로 활성화한다.

(5) 무재철시 불공의 생활화: 액티브시니어 중심의 불공으로 말동무 등 불교의 무재철

시 봉공을 실천한다.

(6) **봉공 요원의 전문화:** 전 교도의 봉공 요원화와 함께 이들을 제대로 이끌 전문 요원의 양성이 절대적이다.

(7) **봉공의 과학화:** 이를 위해서 봉공의 과학화가 절대적이다.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과학화는 봉공의 생산성을 배가시킬 것이다.

(8) **봉공의 시스템화:** 최근의 IT를 활용하여 비대면 봉공의 활성화가 절대적 과제이다. 오프라인에서 원불교는 3대 종교와 경쟁력이 없다. 그러나 비대면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다.

(9) **일원주의 봉공:** 원불교 봉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원 주의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원 주의를 평등주의, 세계주의, 전 생명주의로 요약된다. 특히 새로운 개념의 전 생명주의 봉공을 위한 교단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10) **교법의 사회구현:** 일원 주주의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현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 IV. 5대 봉공의 전원참가 전략

### 1. 원불교 봉공의 톱니바퀴 조직



원불교 봉공의 톱니바퀴는 전교도, 개별 교당, 교구, 교단의 4개의 구성요소를 가진다.

- (1) 전 교도는 봉공 마인드 화로 대아 봉공을 실천한다. 전 교도의 봉공 요원화가 과제다.
- (2) 교당은 기초 봉공을 담당한다.
- (3) 교구는 시스템 봉공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 봉공을 담당한다.
- (4) 교단은 일원 주의 봉공을 실천하며 전국의 수련원을 활용하여 교법의 사회구현을 실현한다.

## 2. 전 교도의 봉공 요원화

원불교와 같이 물질 가난, 인재 가난, 브랜드 가난의 봉공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 전방위적 압박수비) 전략**이다. 적극적 수비 형태인 프레싱이 처음 한국농구에 선을 보인 것은 1954년에 아시아재단에 의해 미국서 초청된 존 번이 프레싱 등 대인방어를 가르쳐 단신이 장신에 맞설 수 있는 수비 형태가 도입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원불교는 전 교도가 봉공 요원이 되어 봉공과 교화가 불이가 되는 전략이다. 전교도의 봉공은 근본적으로는 무재칠시 봉공을 속성으로 한다.

**무재 칠시 봉공** : 부처님께서서는 가진 재산이 하나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하셨다. 이것이 무재칠시다.

첫째, **화안시(花顔施)**다. 환하고 밝은 얼굴이 바로 보시이며,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밝은 표정의 얼굴이 한량없는 공양이다.

둘째, **언시(言施)**다. 고운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거친 말, 비꼬는 말, 꾸중을 삼가자.

셋째, **심시(心施)**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선한 마음을 보내주면 상대도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넷째, **안시(眼施)**다. 호의를 가득 담은 눈, 따뜻한 눈길이 한량없이 좋은 보시가 된다.

다섯째, **신시(身施)**다. 몸으로서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수레를 밀어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는,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말한 것이다.

여섯째, **좌시(坐施)**다. 노약자, 임신부,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앉을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다.

일곱째, **찰시(察施)**다.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일곱 가지, 무재칠시를 실천하는 습관이 되면, 서로에게 행복한 삶이 전개되어, “훌륭하게 사는 인생길”이 열린다. 돈 한 푼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보시 공덕을 쌓아갈 수 있다. 지혜를 구축하지 못한 보시나, 봉사는 허업에 불과하다.

### 3. 교당의 기초 봉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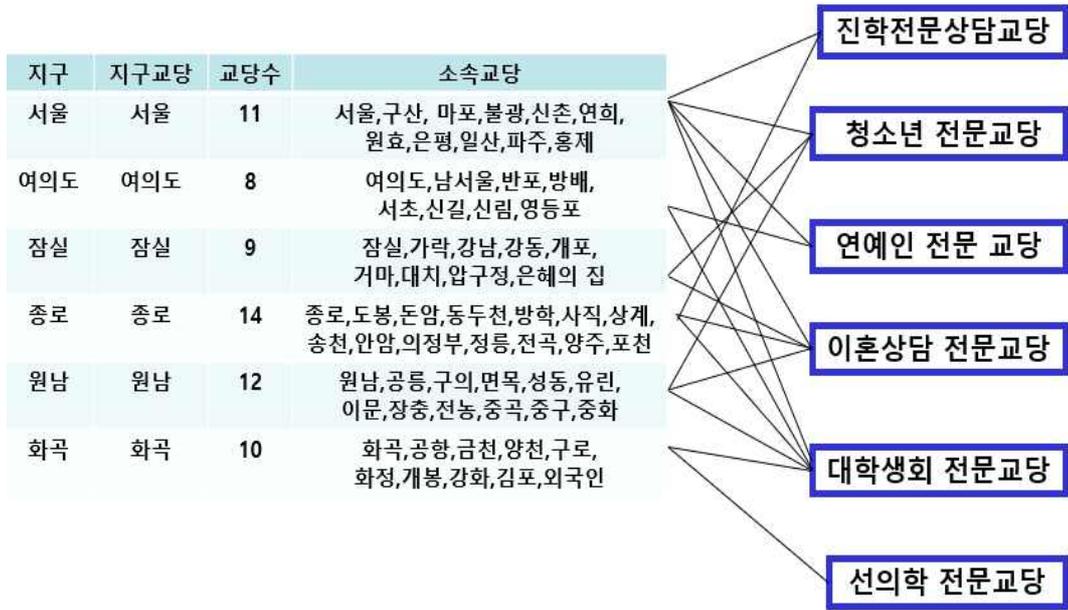
교당은 기초 봉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원불교의 4대 봉공 중 출가 봉공은 당 교당 출신 전·현직 출가자를 봉공에 대한 원호이다. 또한 당 교당 출신의 거진 출신 재가자의 공동자 원호에 해당하는 봉공을 담당한다. 국가 봉공과 세계 봉공은 교당마다 전문 분야를 특성화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봉공이다. 재가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된다. 교당의 세계 봉공을 예로 들면, 외국인 유학생을 각 교당 재가의 도움으로 한국어 학습 봉공을 하는 등이다. 교당마다 전문 봉공 교화단을 편성해서 전문 봉공에 임하고 일반 봉공 교화단은 무재칠시의 기본 봉공을 수행한다.

#### 2. 교당의 기초 봉공의 내실화

5대봉공	상세 내역	참여자
출가	당교당 출신 전·현직 출가자 봉공	전교도
재가	당교당 출신 거진 출신 재가자 봉공	전교도
국가	당교당 전문분야 봉공	재가 전문가
세계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봉공	자원봉사자
전생령	자연보호 캠페인 등	자원봉사자

교화단	봉공 내용	교육
전문 봉공 교화단	전문 봉공	봉공의 전문화
일반 봉공 교화 1단	기본 봉공 (무재 칠시 봉공)	봉공의 생활화
일반 봉공 교화 2단		
일반 봉공 교화 3단		
일반 봉공 교화 4단		

(1) 공동 교화 봉공: 재가 활용



예를 들어 서울에는 65개 교당이 있다. 이를 예를 들면 (1) 진학 상담 전문교당 (2) 청소년 전문교당 (3) 연예인 전문교당 (4) 이혼 상담 전문교당 (5) 대학생회 전문교당 (5) 선의학 전문교당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당들이 분업화된 계열에 따라서 공동 교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교당의 재가들 특성에 따라 이합집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교당의 국가 봉공: 작은 예식 봉공

최근에 일본에 가보면 갑자기 교회의 십자가가 늘어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일본에 기독교인이 증가한 현상이 아니고 일본의 교회가 교화의 일환으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작은 결혼식장으로 변신한 결과이다. 일본 젊은이들의 고민 중의 하나가 100세 수명 시대를 맞아 부모님들의 협조로 결혼식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결혼식이 유행인데 이에 편승해서 교회에서 교회를 결혼식장으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작은 결혼식은 하객 규모가 100명 이하로 소규모 원불교 법당에서도 소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원불교도 국가 봉공의 하나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이 요구된다.

### (3) 교당의 국가 봉공: 말동무 봉공

우리보다 25년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봉공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 말동무 봉공이다. 이것은 미주에서 통일교가 미주 공략 포인트로 활용한 사업이다. 인간은 누구나 하루에 15,000 ~ 25,000 단어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이 인공지능 장난감 인형이다. 일본 단어를 500개 정도 이해하는 인형은 2백만 원 전후로 팔리는 데 인간의 말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이다. 한국에서도 말동무 사회 봉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4) 교당의 전생령주의 봉공

최근에 한국의 목사와 신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신자들이 애완동물의 위령제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한다.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전생령주의에 의해 애완동물의 위령제를 지내는 것이 보편적이나, 기독교에서는 인간 이외의 위령제는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들은 개나 고양이를 넘어 아닌 가족으로 여긴다. 그러니 신부나 목사들이 애완동물의 위령제를 지내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서로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된다. 일본에서는 애완동물뿐 아니라 애완 로봇의 위령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원불교의 전생령주의가 작용하는 증거이다. 인간이 죽어 그 시체가 썩으면 지렁이 등이 먹고 자란다. 그러면 그 지렁이를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새가 먹고, 새가 똥을 싸면 그 똥을 풀이 먹고, 그 풀을 소가 먹고, 그 소를 다시 사람이 먹는다. 이와 같은 먹이 사슬에서 돌고 도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원상이다. 전생령이 천상-인간-수라-아귀-축생-지옥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일원의 전생령주의 상이다.

일본 불교의 특색은 물론 금전 만능주의 색채가 농후하지만, 애완동물의 위령제를 넘어 AI 애완동물 인형의 위령제를 지내는 수준이다.

오랜 세월 애완동물과 지내다 보면 애완동물이 넘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과 유사하게 인공지능 애완동물 인형과 생활하게 되면 고장난 인형을 쓰레기장에 버리지 못하고 위령제를 지내고 싶은 일본인들을 겨냥해서 인형 위령제가 법당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도 여기까지는 못 미쳐도 의과대학이나 유사 연구의 실험실에서 희생되는 실험동물





에 대한 위령제는 보편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용 실험동물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된 원불교 용어로 말하면 공도자 동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 교당은 앞으로 이러한 동물들의 위령제를 통해서 공도자 숭배를 실천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불교는 전생령주의를 추구하는 원대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애완견이나 동물 애호가들의 교화에도 의미가 있다.

#### (5) 독수리 등 야생동물 구호사업

원불교가 추구하는 전생령주의의 개념으로 보면 야생동물도 원불교의 사은 하나인 동포은이다. 타 종교보다 능동적으로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전 교도가 참여해야 한다. 독수리는 정부가 지정한 천연기념물(제243-1호, 1973년 4월 12일 지정)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다.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의 적색 리스트에 ‘취약(VU)’으로 분류돼 있다. IUCN은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을 ‘취약(VU)’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독수리는 전 세계적으로 8,400~11,400쌍이 서식하고 있다. 유럽에는 2,900~3,400쌍, 아시아는 5,500~8,000쌍이 살고 있고 한국에는 500~1,500쌍이 월동한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으로 가창오리를 지목하면서 야생동물의 먹이 주기 행사가 크게 위축됐다. 그 여파가 독수리에게 미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오리류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독수리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전 생령주의의 교리를 믿는 원불교도라면 응당히 자연보호 더 나아가서 자연 동물 보호에 봉공의 자세로서 임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살지 못하는 세상은 인간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과 인간,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자연보호의 원불교의 봉공 활동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 (6) 지진 등 자연 재해자에 대한 봉공의 원불교 교리적 해석

실험실 희생 동물의 위령제가 원불교 교리상의 공도자 숭배라면 지진 등 자연 재해자에 대한 원호도 원불교 교리상의 공도자 숭배에 속한다. 우리 원불교의 모토가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교도는 없다. 그러나 “지진이 은혜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자

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교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풍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가우뚱하던 교도들이 이제는 기상청의 해석으로 태풍의 은혜를 안다. 그 은혜를 알려면 “만일 그것이 없다면?”으로 돌려 생각하면 된다. “태풍이 없다면 지구 해갈은 누가 하며, 청소는 누가 하며, 열대지방의 열기는 무엇으로 시키며, 바다의 물갈이는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 태풍의 은혜를 알게 된다. 그러나 지진



의 은혜는 태풍의 은혜만큼 가시화되지 않는다. “지진이 없다면?”으로 질문을 해도 없으면 좋은 것이지 나쁠 게 없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지진은 진리계의 작용인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원불교는 모두가 은혜라고 하지 않던가? 이것을,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원리로 설명해 보자. 증기 보일러는 잘 못하면 과열되기 쉽다. 과열되면 고압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일러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보일러가 폭발하기 전에 미리 안전밸브가 터지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밸브가 터지면 시끄러울 뿐 아니라 때로는 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밸브를 제거하고 용접한다. 그러면 보일러 폭발 사고가 나게 된다.

지구 구조를 보면 지구 핵은 용암으로 되어 있다. 온도에 따라 지각의 수축과 늘어남이 일어난다. 그래서 진리가 지구를 만들 때 조각 하나로 만들지 않고 여러 조각의 지각으로 만들었다. 지구의 겉 부분은 두께 100km 안팎의 크고 작은 암석 판 10여 개가 구들장처럼 모자이크 모양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다. 이 지각판들은 지구 내부 ‘불의 강물(맨틀)’ 위에서 일렁이면서 지구가 폭발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교각을 만들 때 한 조각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조각 이음으로 하는 것과 유사하다. 교각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하는 것을 이음새의 간격을 갖고 조정하게 되어 있다.



지구의 조각 즉 지각의 원리도 이와 같다. 지각으로 잘 알려진 태평양판, 오스트레일리아판, 카리브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코코스판,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남극판 등이 있다. 지각의 온도와 맨틀의 작용으로 이 지각은 활동한다.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지구가 폭발할 위험이 있을 때, 화산폭발이 생기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화산폭발이나 지진은 보일러에서 안전밸브와 같이 지구가 폭발하여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다. 그래서 지구 폭발을 예방한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지적인 피해로 지구 전체의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의미다. 여기서 보일러의 안전밸브가 터지면 의외의 사고가 나는 것과 유사하게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피해가 발생한다. 여기서 지진을 은혜로 생각하는 원불교의 교리라면 지진으로 희생된 재해를 공도자로 여김이 필요하다.

우리 원불교가 세계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원호하는 것은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는 원불교의 교리 입장에서는 공도자 승배에 해당됨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진리가 일으키는 자연재해의 희생자는 원불교 교리상으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공도자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피해자를 원호하는 것은 원불교 사요의 공도자 승배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4. 교구의 전문·시스템 봉공

원불교 봉공의 주체는 교구 단위 봉공이다. 교구 단위 봉공은 기본적으로 전문 요원에 의

한 전문 봉공과 IT 강국 원불교의 봉공답게 시스템 봉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한 준비 태세로서 봉공 요원의 전문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상	상세 내역	참여자
출가	당교구 현직 출가자 봉공	전교도
재가	당교구 출신 종사위, 대호법 이상 재가자 봉공	전교도
국가	당교구 전문분야 봉공	재가 전문가
세계	세계봉공재단과 종교 연합 운동 연계	자원봉사자
전생령	사회단체 전생령 봉공 활동 적극 참여	자원봉사자

(1) 봉공 요원 전문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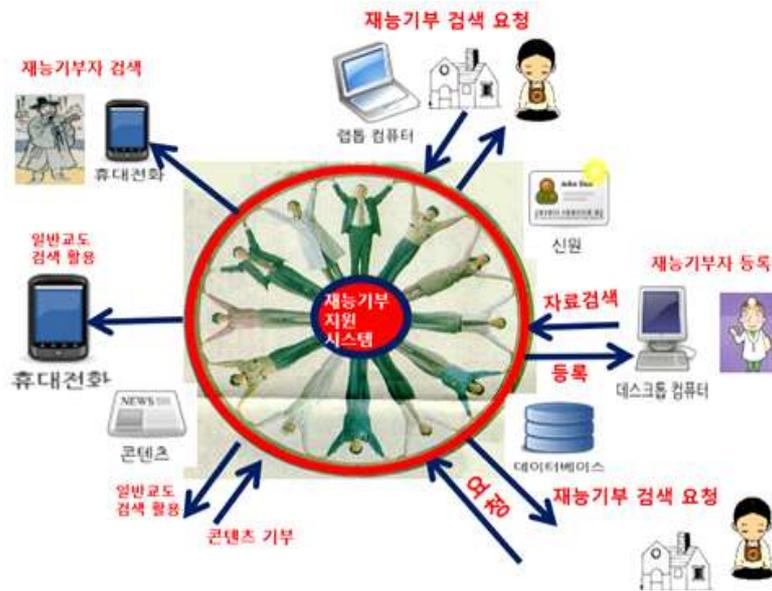
봉공 요원의 전문화 교육은 전문 영역에 대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인간 구조에 대한 인공호흡법, 제세동기의 활용법 등 의학적 스킬이 필수적이다.



(2)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

우리 원불교의 특징 중에 재가 교도 중에 지식인이 타 종교에 비해서 많다는 점이다. 현

직 교수 또는 전직 교수 출신만도 3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재능기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활용해서 재능기부 봉공에 활용한다면 획기적 성과가 예측된다. 이를 위해서 재능기부 봉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재능기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복덕방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구청에 홈페이지 등을 설치함으로써 정보관리를 하면 된다.



(3) 교구의 재가자 재능 봉공: 영세교당 지원 봉공 - 쪽지 교화(One point lesson)



쪽지 교화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술 중에서 일부분의 동작에 대해 배우고 가르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보통 탁구에서 커트, 드라이브, 스매싱 등과 같은 한 가지 기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할 때는 넓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커트 또는 드라이브에서 사용되는 동작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교정해 주거나 때로는 그 사람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일부분의 동작에 대해 배

우고 가르치므로 1분, 5분, 10분, 30분 때로는 1시간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므로 대부분은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 된 부분을 고치기만 하느냐, 고친 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고치는 것은 원포인트 레슨이고 숙달시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레슨에 속한다. 다만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 번에 고치기 어려울 때는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 원포인트 레슨으로 고칠 수 있으려면 배우는 사람이 폭넓은 기초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두 마디 말이나 한두 가지 동작의 시범으로 고쳐지는 것이지 초보자 수준이면 원포인트 레슨을 효과가 거의 없을 경우가 많다.

## 5. 교단의 일원주의 봉공

『대산종사법문집』 제3집 제2편 교법 86. 일원주의.

대종사님의 주의와 사상은 일원주의(一圓主義)요, 대세계주의(大世界主義)며 전체주의(全體主義)요, 전생명주의(全生靈主義)이다. 이는 바로 이 세계를 낙원의 세계, 평등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조직	필요 시스템	기타
소수 정예 전문 봉공단	품질 시스템(봉고 매뉴얼)	
재능기부 전문가 풀	재능기부 지원 시스템	
비대면 봉공 네트워크	비대면 네트워크	
전생명봉공회	전생명봉공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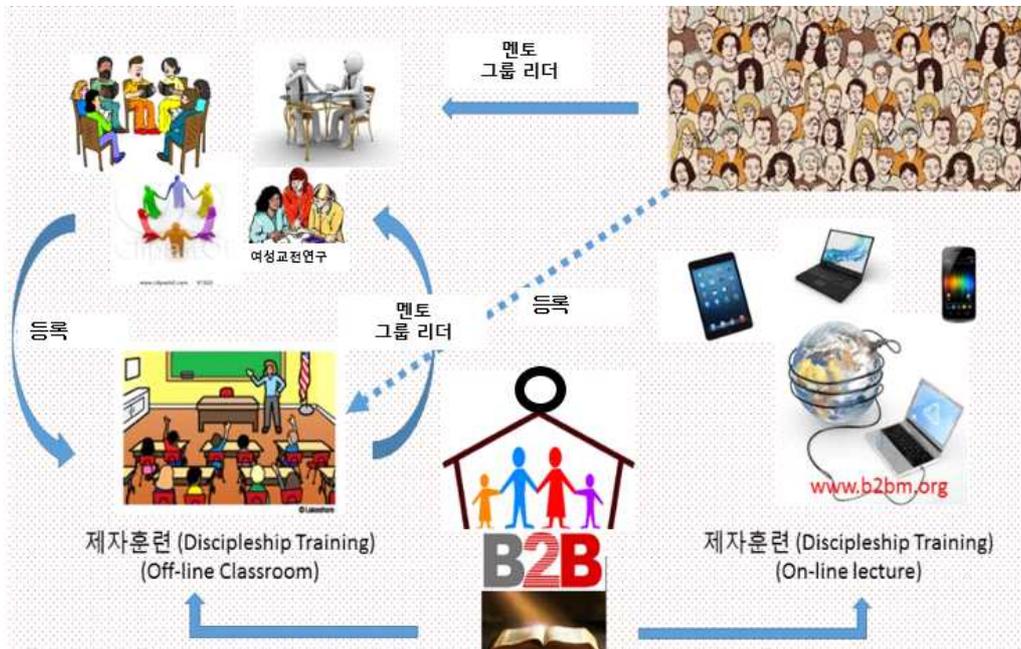
### 1) 원불교 힐링 센터(도심 속의 선방) 운영

‘나는 누구인가?’ 도시 삶에 매몰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한 번쯤 품어봤음 직한 생각이 다. 툭니바퀴처럼 틀에 박혀 돌아가는 삶을 벗어던지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뒤로하고 무작정 산사로의 일탈을 감행할 수도 없는 일. 이런 사람은 깊은 산사에서 대중을 향해 도심으로 내려온 간화선의 수행법이지만 종교적인 색채가 적어 비종교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깊은 산사에서 깨달음을 전파하기 위

해 도심 속으로 내려온 간화선을 체험하러 떠나자.

## 2) B2B 가상 교당(Virtual Churches)

2021년 11월 12일 개최된 오스틴교당 메타버스 봉불식에서 체험한 바와 같이 21세기 메타버스는 원불교 교화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현실이 오감으로 느끼는 세계라면 메타버스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세계다. 시공간을 초월해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확장해 가는 메타버스는 오프라인에서 절대 열위에 있는 원불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원불교 교도뿐 아니라 전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고 발전시켜 주는 정신개벽의 영성소가 될 것이다.



## 3) 교단의 재가 봉공: 해외 출가자 양성 및 수입

텔레교당 법회 양천의 교무 발령 후 첫 법회 때 7명이었던 교도가 현재 매주 일요 법회에는 150여 명, 특별행사 기간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교당이 짝 찬다. 어린이들은 법회 2시간 전에 나와 교당 정리 정돈, 입구에서 맞이하기, 법신불 전 4배 지도 등을 자발적으로 하고, 영문 설교·힌디어 통역이라는 긴 설교 시간에도 진지하게 참여한다. 이런 열정은 신심으로 이어져 전무 출신을 원하는 학생이 100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한국 방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도인 전무 출신이 다수 배출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 4) 교법의 사회구현 봉공

원불교의 비교우위 분야의 하나가 훈련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봉도청소년수련원, 오덕훈련원, 등지골훈련원, 우인훈련원 등 4개의 훈련원이 있다. 중부지역에는 삼동원, 영광국제마을훈련원, 소남훈련원, 완도청소년수련원, 변산원광선원, 하섬해상훈련원, 만덕산훈련원, 중앙상주선원, 중앙중도훈련원, 지리산국제훈련원이 있다. 경상권에는 동명훈련원,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등이 있다. 특히 제주에는 국제훈련원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교법의 사회구현을 통한 국가 봉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교과목을 개발함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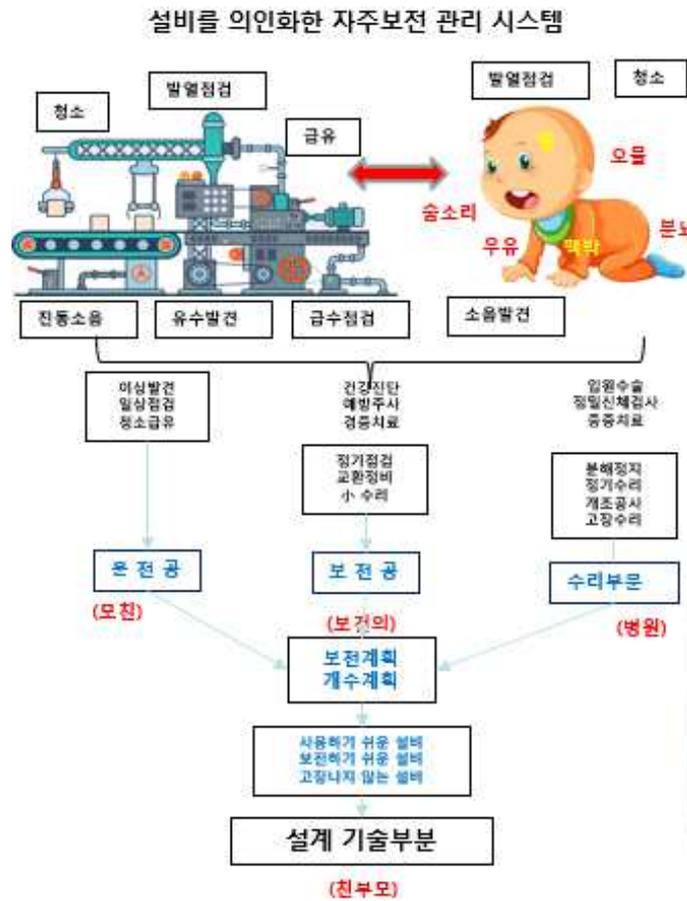
##### (1) 사례 1 - 마이머신 운동

생산 현장의 설비 하나하나마다 관리책임자를 선정, 자신 소유의 기계처럼 여기며 점검·보수하도록 하는 ‘마이머신 운동’이 새로운 생산성 향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생산설비의 점검·보수 활동을 대부분 업체가 별도의 점검반에 맡기는 것과는 달리 설비운영자가 직접 맡도록 함으로써 마치 자기 물건을 아끼듯이 점검·보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설비 운용에 대한 각종 개선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설비가 매우 정밀하고 공정이 복잡한 삼성항공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설비운영자의 작업강도가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고장률이 과거보다 20% 정도 떨어져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공정개선에 대한 제안도 이미 20여 건이나 접수된 상태다.

(주)럭키의 여천·부천공장도 신입사원은 물론 공장장까지 담당 설비를 부여하는 ‘내 사랑 설비 갖기 운동’을 벌여 현재 설비보수 비용을 20% 정도 줄이고 있으며 관리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보너스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올해부터 이 운동을 벌일 계획인 인천제철의 관계자는 “기계를 가장 잘 아는 운전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예방점검을 하는

것이 별도의 점검반을 운영하는 것보다 기회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2) 사례 2 - 1자 3배 정성운동

세계 최초로 완전 품질(ZD: Zero defects)을 실현한 팔만대장경의 비밀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24년(1237)부터 35년(1248)까지 12년간 1,000여 명의 각수가 5,200만 자의 글씨를 81,340경의 경판에 각인을 한 것으로, 영국이 자랑하는 브리태니커 사전의 5배의 분량에 해당하는 거대한 작품이다. 그런데 한자의 오자도 탈자도 없는 이유는 1자 3배(一字三拜)의 정성이었다.

글씨 한자를 새기고 절을 3번 한 정성: 한 번의 절은 몽골 병란으로부터 조국을 구해 달라는 절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의 절은 자기 가족을 지켜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고 마지막 한 번의 절은 자기의 안위를 비는 간절한 기원을 담았다.

일자 삼배 정신의 품질 문화 운동은 한국전력의 인천지사에서 실제로 실천하여 성공을

얻은 바 있다. 삼중 정성 운동으로 명명된 동 운동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실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3번 질문하기
- 둘째, 3번 점검하기
- 셋째, 3번 다지기
- 넷째, 3번 인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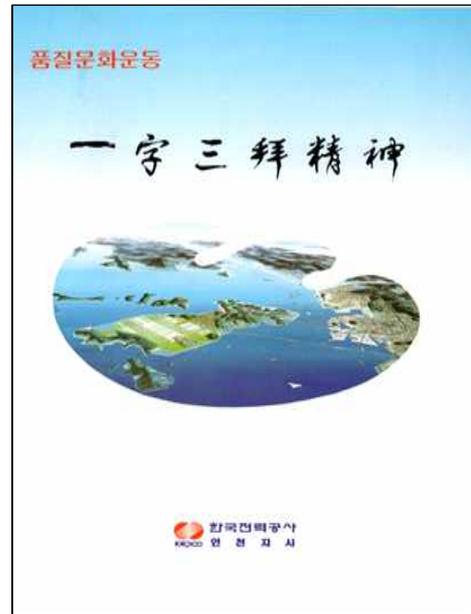
첫 번째 3번 질문하기 운동은 3번의 왜(3WHYS: 왜? 왜? 왜?) 운동으로 ①원류 관리: 설비 고장 원인을 3번 추적하기 ②역지사지: 고객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하기 ③수평적 사고: 국가, 회사, 자기의 관점에서 3번 사고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3번 점검하기 운동은 ① 작업 전에 안전 점검 ② 작업 중엔 오류 점검 ③ 작업 후에 끝마무리 점검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3번 다지기 운동은 ① 아는 절차도 규정 찾아보기 ② 아는 업무도 전문가 자문 듣기 ③ 아는 내용도 당사자 의견 듣기로 구성된다.

네 번째, 3번 먼저 인사하기 운동은 ① 고객이 찾아왔을 때, 요구할 때, 돌아갈 때 먼저 인사하기 ② 상사에게, 부하에게,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기 ③ 전화를 걸 때, 받았을 때, 끊을 때 먼저 인사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운동은 현대 자동차의 정몽구 명예 회장의 경영 지침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현대 자동차의 품질 혁신에 이바지한 바 크다. 또한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인들의 모임인 서울 재팬클럽의 다카스키 노부야 회장도 한국 기업이 나가야 할 길로 품질 국가 한국론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팔만대장경의 1자 3자 정신에서 한국 기업의 미래를 설계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다카스키 노부야는 한국 후지제럭스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김앤장 자문위원과 한국 대통령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는 대아 봉공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3) **기초 봉공의 내실화**: 강소 종교의 보이는 봉공은 허례허식을 통한 보여주는 봉공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봉공을 추진함이 요구된다.

(4) **재능기부 봉공의 활성화**: 불교의 지혜 보시에 해당하는 재능기부를 재가 교도들을 대상으로 활성화한다.

(5) **무재철시 봉공의 생활화**: 액티브시니어 중심의 봉공으로 말동무 등 불교의 무재철시 봉공을 실천한다.

(6) **봉공 요원의 전문화**: 전교도의 봉공 요원화와 함께 이들을 제대로 이끌 전문 요원의 양성이 절대적이다.

(7) **봉공의 과학화**: 이를 위해서 봉공의 과학화가 절대적이다.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과학화는 봉공의 생산성을 배가시킬 것이다.

(8) **봉공의 시스템화**: 최근의 IT를 활용하여 비대면 봉공의 활성화가 절대적 과제이다. 오프라인에서 원불교는 3대 종교와 경쟁력이 없다. 그러나 비대면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9) **일원주의 봉공**: 원불교 봉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원 주의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원 주의는 평등주의, 세계주의, 전 생명주의로 요약된다. 특히 새로운 개념의 전 생명주의 봉공을 위한 교단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10) **교법의 사회구현**: 일원 주의의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현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 서용스님의 참사람결사와 자비실천

오종만(금강스님)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 차 례

- I. 머리말
- II. 참사람 사상과 참사람결사운동의 이해
- III. 현대 물질문명 비판
- IV. 인간성 회복을 위한 선수행과 참사람
- V. 맺음말

## I. 머리말

오늘날의 세계를 규정하는 용어는 ‘위기’이다. 다양한 포럼에서 위기를 주제로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일례로 한겨레신문이 주관하는 14회 아시아미래포럼(2023.11.11.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의 주제는 ‘다중위기 시대: 공존의 길을 찾아(The age of the polycrisis : A way to coexistence)’였다. 작년(2022)에 열린 다보스포럼의 참가자들은 현시대를 ‘복합위기’로 규정하였고, 이를 반영하듯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인류가 맞이한 ‘포스트 팬데믹’은 기대와 달리 ‘위기’이다. 인류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중간 패권전쟁은 국제사회를 신냉전이라는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서구산업국가들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블록화

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질서는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며, 다양성을 미덕으로 여기던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이민자를 향한 폭력과 배제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결과를 극우정권의 부활로 확인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정치위기, 기후위기도 반복되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안보 위협과 생태계 파괴는 더 이상 특정 국가들만이 경험하는 위기가 아니라, 대부분 국가가 직면한 인류 보편의 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각국에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끌어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정치는 양극화되었고, 혐오정치는 완화되기 보다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사회와 각국은 포럼과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대회 등 지혜를 모으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이 위기들을 극복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서옹(西翁石虎, 1912-2003)스님의 ‘참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옹스님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사로 알려져 있지만, 참사람결사운동을 실천하고 그 토대가 되는 ‘참사람 사상’을 정립한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님은 이미 자신이 살던 시기를 ‘위기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그 원인을 서구의 문명에서 찾고 그 해법으로 ‘선’을 제시한 현대문명비평가이기도 하다.

1998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고불총림 무차선회’의 서옹스님의 개막식 법어는 “**인생 문제와 세계 문제를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철대오한 것이 선**”이라는 규정으로 시작한다.<sup>1)</sup> 선수행은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이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 세계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서옹스님은 현대사회와 인류는 욕망적으로 타락하였고 서로 투쟁하고 있어서 이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위기를 해소할 치유책으로 선수행을 통한 참사람으로의 전화(轉化)와 이를 위한 사회운동(참사람결사운동)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을 체계화한 것이 ‘참사람 사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사람의 실천과 참사람결사운동은 곧 자비실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sup>2)</sup>

## II. 참사람 사상과 참사람결사운동의 이해

‘참사람’은 임제(臨濟義玄, ?-867)스님의 ‘무위진인(無位真人)’을 서옹스님이 번역한 단어이다.

1) 서옹,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고불총림 무차선회’ 자료집』, 1998.

2) 앞서 언급한 무차선회는 서옹스님이 참사람결사운동을 제창하고 이를 세계 차원으로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단어를 서용스님은 1970년대부터 사용하였고 종정취임범어에서도 주창하였다. 여러 법문과 신문기고문에서 참사람의 의의와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참사람 사상은 ‘결사’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사회운동으로 ‘참사람’이 확장·심화된 시기는 서용스님이 「참사람결사문」과 「참사람서원」을 발표한 1995년 초겨울이었다. 서용스님은 이 두 문건에서 참사람결사의 필요성과 참사람 사상, 위기 극복 방법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법의 논리와 그 구조를 같이한다. 사성제를 문제해결 방법으로 재구성한다면 ‘고 - 집 - 멸 - 도’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고, 문제의 발생 이유인 집,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 멸,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도의 논리구조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고집멸도 이해 구조에 따라 참사람 사상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고집멸도의 논리구조에 입각한 참사람 사상 재구성

고	현대사회의 문제 인식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
집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	현대물질문명에 의한 인간성 파괴
멸	위기가 극복된 상태	참사람과 참사람의 자비실천
도	위기 극복을 위한 치유	선수행, 참사람결사운동

참사람결사문에서 당시 한국사회와 현대문명에 대한 위기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성제의 논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용스님의 사회인식이 곧 참사람결사운동의 이유이다.<sup>3)</sup>

한국사회와 불교계의 원로로서 서용스님은 위기의 시대에 한국사회와 한국인에게 전할 메시지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고민의 결과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혼란 극복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운동으로 참사람결사운동이 시작되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3) 발표자는 다른 글에서 참사람결사운동으로의 확장·심화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의 결과, 둘째는 해방 후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만암스님의 유업 계승의 결과, 셋째는 현대물질문명의 비판과 한계 극복으로서의 사회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은 세 번째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자세한 논의는 오종만(금강), 「西翁石虎의 참사람사상에 관한 연구」(원광대 박사논문, 2016)을 참고할 것.

1990년대 이후로 한국사회의 구조는 경쟁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사람들 사이에 넘치던 정(情)과 인심(人心)은 옛일로 기억될 뿐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전통사회의 구조가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크게 변화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와 정보화로 또다시 한국사회의 구조는 변화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를 언론에서는 ‘신세대’ 혹은 ‘X세대’로 규정하며, 이전 세대와 구별하였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입은 첫 세대로서 소비에 익숙하고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세대였다.

세계화 물결 속에서 국제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도입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원리가 기존의 사회원리를 대체하였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위방식, 사유방식도 서구사회가 주도하는 세계경제체계의 자본주의적 원칙에 맞춰 변화하였다. 이제 경쟁에서 뒤떨어진다고 느끼는 사람과 집단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일어나 개인적으로는 인간성 왜곡현상을, 사회적으로는 계층/계급간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밀레니엄 교체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별다른 준비 없이 경험하였다. 특히 1990년대는 밀레니엄 교체기로 소위 ‘세기말적 증후’로서 사회적 혼란과 공포심이 심했던 시기였다.

보다 시야를 넓혀 현대문명에 대한 서옹스님의 평가도 담겨 있다. 그는 현대사회가 서구에서 유래한 물질문명에 의해 조작된 문명이며, 바로 이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세계인류 여러분! 과학문명이 붕괴에 직면하고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현대를 ‘참사람 원리(原理)’로서 극복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이룩합시다.<sup>4)</sup>

이러한 내용은 참사람결사문 첫 문단에 집약되어 선언되고 있다. 서옹스님은 당시 시대를 과학문명의 시대, 욕망의 시대, 투쟁의 시대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현대과학문명이 ‘붕괴에 직면하고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 III. 현대 물질문명 비판

서옹스님은 현대문명이 아무런 반성 없이 이대로 발전해나가고 지금의 원리대로 역사를

4) 서옹, 『고불총림 백양사』, 정보문화센터 첼린컴, 1996, 147쪽.

창조한다면 인류는 결국 멸망한 것이라고 우려하였다.<sup>5)</sup> 그의 우려가 오늘날 기후위기라는 모습으로, 6차 대멸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현대 인류는 과학문명으로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교통 통신도 편리해져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고달려서 제 정신이 없습니다. 현대 사람은 이 복잡한데 고달려서 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참선을 하면 어디에도 고달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역사를 자유자재하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문명은 대자연을, 인간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조로 흘러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 시켜서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까지 병들고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sup>6)</sup>

서용스님은 인류가 직면한 현대사회의 위기들이 현대과학문명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과학문명에 의해 훼손된 인간성을 선수행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 1. 지말적 과학문명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며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생활 영역도 넓어졌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이전보다 길어졌고 예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에게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자원과 에너지 고갈, 생태계 파괴, 인종·계급간 갈등, 종교간의 갈등, 난민문제, 생물종 멸종, 기후변화 등 이전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서용스님은 이러한 사회문제는 현대과학기술이 인간의 외면에 만 치중하고 내면에는 소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용스님은 현대의 과학문명이 ‘지말적’이라고 비판하였다.<sup>7)</sup>

지말적 과학문명으로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은 불균형해지고, 이 불균형으로 인해 사람들의 본능적 욕망은 절제되지 않는다. 외면을 중시하고 내면을 등한시하는 문명에서 본능적 욕망이 폭발한다. 인간의 마음이 먼저이고 물질은 선용(善用)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기 때문이다.<sup>8)</sup> 이처럼 분출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과학기술문명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물질적 측면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발전해 있다. 그러

5) 서용, 『참사람의 향기: 서용상순 대종사 1주기추모집』, 백양사, 2004, 48쪽.

6) 서용,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고불총림 무차선회' 자료집』, 1998.

7) 서용, 『서용스님의 임제록 연의』, 아침단청, 2012, 7쪽.

8) 매일경제신문사특집부, 「서용 큰스님 : 인간의 참모습을 찾아야 이 혼란이 극복됩니다」, 『필동정담』, 매일경제신문사, 1990, 10쪽.

나 인간의 내면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황폐화되었다.

## 2. 근원적 통일의 부재

과학문명은 인간과 세계로부터 초월하기보다는 자기입장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학문명은 인간의 근원적 본지(本地)에 관심이 없다. 따라서 과학문명은 인간과 세계의 존재 기반이 되는 초월적이며 근원적인 바탕이 없다. 근원적인 ‘바탕’을 상실한 현대인은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 또는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모순과 갈등을 경험한다. 즉, 현대과학기술에서는 보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간의 기본구조는 ‘다(多)를 근원적으로 통일하는 일(一)’과 ‘근원적·통일적 일(一)에서 형성되는 다(多)’가 융화되어서 둘이 아니다. ‘다(多)가 없는 일(一)’은 내용이 없는 단순한 허공일 뿐이다. ‘일(一)이 없는 다(多)’는 통일이 없는 단순한 분열이다.<sup>9)</sup> 과학기술의 다(多)는 각각이 분리되어 존재한다. 다양성을 관통하는 존재의 근본요인이 되는 일(一)·보편이 상실되어 분열현상이 나타난다. 현대문명은 복잡화하고 정글화해서 근원적인 바탕이 되는 일을 상실하여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혼란, 허탈, 불안, 혼미, 회의, 노이로제, 염세 등의 정신적 아픔과 현대인의 분열증상은 근원적·통일적 일을 상실한 결과로 설명된다. 서용스님은 이 분열증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현대인과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치유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근본의 ‘일(一)’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근본의 ‘일(一)’을 상실하여 분열과 혼미, 불안에 빠져 점술이나 주술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늘었다. 그러나 점술이나 주술은 일시적인 진통제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분열과 불안을 가중시켜 더욱 위험하다.<sup>11)</sup> 현대인이 경험하는 분열과 불안은 인간의 보편성[一]과 독자성[多]이 일체가 되는 참모습을 자각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 원래 동양의 참인간상은 욕망과 이성을 초월한 근본생명체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한 본래면목을 해결하면 전우주가 전일(全一)한 근본생명체가 된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인 일다일여(一多一如)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사회주의의 일체성도 차원 높게 통합될 수 있다.

9) 서용, 『참사람의 향기 : 서용상순 대중사 1주기추모집』, 백양사, 2004, 58쪽.

10) 위의 책, 28쪽.

11) 위의 책, 59쪽.

### 3. 이원론적 세계 인식

과학문명의 기초원리를 정립한 철학자는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이다. 그는 방법론적 회의주의, 즉 ‘모든 것을 의심하고 어떠한 것이 명확한 것이냐’ 하는 의심을 지속하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갔다. 이 의심하는 자기, 생각하는 자기, 그 이성적이고 오성적인 자기의 그 정신을 확실한 존재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분명한 정신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물질 역시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정신과 물질만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실체라고 인식하는 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서양 철학은 ‘사유하는 사람’과 ‘정신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주체와 객체로 구분한다. 나아가 데카르트는 정신의 속성은 의식, 물질의 속성은 연장이라고 규정하고 정신은 목적론이고 물질은 기계적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사유하는 정신은 주인으로, 물질은 하인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서용스님은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에 의해 서양문명의 밑바탕에는 무엇인가를 지배하고자 마음과 욕망이 밑바닥에 잠재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욕망은 대자연을 정복하려는 욕망으로까지 이어진다.

오늘날 세상은 온통 싸움뿐이야. 신문에다 온통 싸우는 이야기뿐 인간다운 게 없어. 그러면 인류가 멸망해. 지금 인간들이 온 인류를 다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투쟁 철학과 과학기술이 만나면 인간도 대자연도 다 죽어. 참으로 위기야.<sup>12)</sup>

### 4. 투쟁에 의한 문제해결

현대과학문명의 기틀을 다진 서양철학은 대립을 투쟁으로 해결하는 철학이다.<sup>13)</sup> 대표적인 철학이 변증법이다. 특히 변증법적 역사관은 역사를 ‘대립을 투쟁으로 서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발전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투쟁의 철학은 데카르트 이후의 니체,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해 정립되었다.

투쟁의 철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마르크스의 철학이다. 그는 ‘계급투쟁’을 통해 역사가 창조된다고 하였다. 니체는 서양의 전통적인 이성 철학에 반발하여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12) [산중휴담](18) 서용스님(백양사 방장), <한국경제> 2001.11.29.

13) 서용, 『절대현재의 참사람』, 불교영상회보사, 1998, 34-38쪽.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욕'이라고 주장하며 권력욕을 인간의 본질로 내세웠다. 권력욕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단순히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을 넘어선다. 인간의 강력한 지배욕구와 의지는 현실에서는 투쟁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19-20세기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급기야는 두 차례에 걸쳐 세계대전이 있었다. 거대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두 편으로 나누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패배시키기 위해 온갖 살상무기를 동원하여 전쟁을 치렀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약 3,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이보다 많은 5,000만 명에서 7,00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는 여전히 실전에 배치되어 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문명이 전 인류를 당장에라도 파멸시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권력욕의 발로이다.

## 5. 욕망 긍정주의

서용스님은 현대 과학문명을 창조하는 원리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하였다. 근대 이후 서구사회는 욕망을 사회발전을 위한 바탕으로 삼고 이를 극대화하였다. 이로 인해 욕망이 극대화된 현실에서 현대인들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욕망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욕망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인 만큼 욕망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서용스님도 이러한 관점에서 욕망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욕망은 초월적, 근원적인 차원의 전체 연관 속에서 체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근원적인 바탕으로 없는 욕망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sup>14)</sup> 문제는 현대사회의 욕망이 근원적인 바탕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욕망은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나 이외의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욕망에 따른 행동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주의가 오늘날 욕망으로 흘러 전쟁과 환경파괴를 낳고 있어요. 물질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sup>15)</sup>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생(生)이 유한하다는 절대모순을 고려하지 않는다.<sup>16)</sup> 욕망에 가

14) 서용, 『참사람의 향기 : 서용상순 대종사 1주기추모집』, 백양사, 2004, 59쪽.

15) 위의 책, 139쪽.

16) 위의 책, 175쪽.

득 찬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혀 주체성을 잃게 되었고, 욕망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주체성이 상실한 사람이 되었다.<sup>17)</sup> 욕망의 지배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욕망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종속물로 삼는다. 욕망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 상극이 되고 서로 해치게 된다. 폭력도 욕망에서 나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권모술수도 욕망을 좇아 지성을 악용함으로써 나온다. 욕망이 바탕이 된 과학문명의 원리를 시정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sup>18)</sup>

욕망은 삼독의 하나로서 불교에서는 극복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는 이 욕망이 긍정되며, 욕망에 의해 과학문명이 추동되고 있다. 스님의 이러한 현실인식에 따라 욕망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선 수행은 더욱 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스님은 다양한 불교수행 중에서 선이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이라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욕망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욕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선을 더욱 강조하였다.

## IV. 인간성 회복을 위한 선수행과 참사람

### 1. 선(禪) 수행

서용스님은 현대과학문명이 야기한 위기들의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한 생각 돌이키면 간단한 문제’라고 하였다.

‘수행자들의 공부방법은 참선이 제일’, ‘무위진인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하며 선수행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선을 강조하는 이유는 선수행을 통해 ‘참사람’이 될 수 있으며 참사람이 되어야 현대사회의 산적한 병폐를 해결하고 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자유를 아는 존재, 현대문명을 넘어선 활발활한 존재는 선수행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용스님은 선수행을 사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과학문명으로 역사를 창조하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 바탕에서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세계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는 법어는

17) 위의 책, 59쪽.

18) 서용, 『참사람의 향기 : 서용상순 대중사 1주기추모집』, 백양사, 2004, 140쪽.

스님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sup>19)</sup>

서용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을 회복한 ‘참사람’으로 살 방법으로 선수행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선수행의 강조는 불교의 방편론에 따라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에게 선이 가장 적절하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조사선은 참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 방법이지요. 조사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참사람 운동의 핵심입니다. 조사선은 자아를 초월하여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드러내게 하며, 이러한 경지를 참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사선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두 조화롭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며 공존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조사선이기에 조사선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아름답고 즐거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의 바탕 위에서는 누구나 자비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무너진 인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sup>20)</sup>

서용스님이 제시하는 해답은 선수행을 통해 현대인들이 무상무주의 참된 나, 즉 자신이 참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선수행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그는 강하게 믿었고 이를 참사람결사운동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서용스님의 선수행 강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선수행의 목적이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수행의 목적이 현대사회의 위기 극복으로 제시된 점에서 이미 예견되지만, 서용스님의 선수행은 깨달음의 적극적인 실천, 곧 자비실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이다.

옛날의 선은 개인을 구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가 좁아져서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세계성을 띠므로 세계의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개인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선도 세계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up>21)</sup>

서용스님은 참선수행의 목적으로 자비심과 자비실천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참사람에게는 사리사욕이 없고 진실하고 공명정대하며 한량없는 자비심을 갖는다고 하였다.<sup>22)</sup> 이러한 자비심은 근본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이었으나, 선을 통해 자각되고 발동된다. 이를 통

19) 서용,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고불총림 무차선회’ 자료집』, 1998.

20) 『가까이서 본 큰 스님』 서용스님, <현대불교> 2002.1.23.

21) 서용, 『참사람의 향기 : 서용상순 대종사 1주기추모집』, 백양사, 2004, 64쪽.

22) 미산, 「진정한 자비의 실천과 선불교 자비행법의 모색」,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운주사, 2015, 176쪽.

해 참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는 ‘무주상(無住相)의 대행(大行)’을 전개한다. 서용스님은 위대한 인간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sup>23)</sup>

한량없는 자비심, 곧 동체대비의 자비심의 바탕에서 신의를 지키고 존중하며 서로 도와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다치게 하고 착취하는 범죄와 전쟁, 차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환경 파괴나 생태계 오염 같은 인간과 자연 간의 부조화와 마찰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스님은 그의 자비실천에 지구환경 보호와 생명체의 공존 공생까지 포함시킨다. 이러한 자비실천은 참사람이 동체대비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참사람에게는 자기본위의 것이 전혀 없다. 자기는 곧 타인이고, 타인이 곧 자기이다.<sup>24)</sup>

서용스님은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이 진실한 인간상이며, 인간의 참다운 실존이 바로 부처님”이라며 자비가 바로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 자비가 인간의 바탕이 될 때 인류는 평등한 공동체가 된다.<sup>25)</sup>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수행자들이 수행지상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였다. 선(禪)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을 통해 자비와 화합을 사회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에서 서용스님은 선수행이 현대문명의 자기파괴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인류가 자비심을 갖고 사리사욕 없이 참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수행보다 참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선수행이 가장 우월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존재들은 자비와 화합의 바탕으로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인간질서의 회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서구과학문명이 벽에 부딪히면서 서구에서도 동양사상, 특히 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수행을 통해 우리는 인간을 과학문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체적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 선은 과학문명을 구제하고 전진시킬 진리라고도 하였다.<sup>26)</sup>

이러한 관점에서 불자들은 불교가 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선을 통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각을 기반으로 불자들이 수행·교육·포교로 인류를 구출할 사명을 다함께 성취해 나가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를 서용스님은 **‘나를 버리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하나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sup>27)</sup>라고 하며, 이를 위한 선수행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사람결사는 선수행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실행활동이자 동

23) 서용, 『절대현재의 참사람』, 불교영상회보사, 1998, 29쪽.

24) 서용, 『절대현재의 참사람』, 불교영상회보사, 1998, 190-192쪽.

25) 위의 책, 125쪽.

26) 위의 책, 30쪽.

27) 위의 책, 139쪽.

시에 불교적 이상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참여였다

## 2. 참사람

서옹스님은 현대사회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서구의 인간중심을 제시하고, 그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인간관에 주목하였다. 서양문명과 서양철학에 대한 비판은 이성과 욕망에 기초한 인간관에 대한 비판이다. 새로운 역사와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인식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간에 대한 인식, 즉 현대문명에 종속된 인간관이 현대문명의 병근(病根)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서양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간주의는 한없는 욕망으로 인한 전쟁과 환경파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동양의 전통적 정신문화에는 인간을 초월해 인간의 모순을 해결한 참사람이 살아있다. 오직 이 참사람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세계평화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류는 원래 ‘참사람’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참사람인데 환경에, 과학문명에 끌려서 노예가 되고 제정신이 없이 살고 있다. 우주가 모두 조화돼서 서로 의지하고 힘과 은혜를 입고 사는데 인간들은 대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죽이고 사람도 못살게 만들고 있다. 서옹스님은 물질문명과 과학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새로운 역사와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은 참사람, 즉 근원적 주체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 서옹스님은 선(禪)을 제안하고 있다. 서옹스님은 **선은 근원적 주체를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한다. 근원적 주체, 즉 참인간이 함께 참여하는 창조한 과학문명은 아무리 독자성을 강조하며 다양화되더라도 분열되지 않는다. 반대로 보편성을 강조하여 하나를 추구하더라도 공허하지 않다.

근원적 주체는 무한히 창조하고 무한을 형성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나 스스로 거기 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걸림없이 解脫自在하여 무한히 문명을 창조해 나아가는 것이다.<sup>28)</sup>

서옹스님이 참사람 사상에서 추구하는 인간은 기존 서구에서 유입된 인간과는 다른 근

28) 서옹, 『절대현재의 참사람』, 불교영상회보사, 1998, 29쪽.

원적 주체이다. 과학문명을 진실한 인간문명으로 되돌려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 혁신적인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혁신적인 인간관은 단지 서구의 합리적 인간관을 거부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간관의 혁신은 선수행을 통해 가능하다.

현대에는 인간의 理性과 자율성을 각성한 시대다. 禪은 이성이로되 이성을 초월하고 모순하지 않는다. 근원적 주체의 자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은 과학문명을 구제하고 전진시킬 진리가 된다.<sup>29)</sup>

‘참사람’은 자유자재적 가치, 공존의 가치, 자비의 가치, 연기적 생명의 가치, 종속성을 극복한 평등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설명된다. 서용스님은 모든 사람이 선수행을 통해 이 다섯 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도 일상의 삶에서 생명(평화)과 자비, 공존, 평등, 자유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

### 3. 참사람과 참사람결사운동의 자비실천

서용스님은 참사람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 설명 중에서도 스님이 강조하는 참사람의 모습은 자비를 실천하는 참사람이며, 이를 ‘우주적인 참사람’이라 부르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참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크게 깨달아 모두가 본래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함께 번영하는 동체자비심을 행하여 진실하고 평화스러운 불국정토 건설을 이룩하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못 본 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교 진리의 꽃은 「우주적인 참사람」인 것입니다.**<sup>30)</sup>

서용스님의 ‘자비실천’ 이해에 중요한 것은, 자비의 여러 특성 중에서 평등과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모든 행동은 자비에서 나온다. 불교의 진정한 자비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평등도 흔히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주장하지만, 참사람의 견지에서 말하는 평등은 구경(究竟)의 평등이다. 이 평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횡적 넓이의 평등이다. 이 평등은 사람 자체의 내면에도 적용되는 종적 깊이의 평등이다. 인간의 근본바탕은 허공과 같아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자비는 아무

29) 서용, 『절대현재의 참사람』, 불교영상회보사, 1988, 30쪽.

30) 위의 책, 27-128쪽.

런 조건이 없는 무연대비(無緣大悲)의 자비이며, 자성지혜(自性智慧)를 바탕으로 하는 절대평등의 사랑이다.

두 번째로 자비는 사회를 향해야 한다. 서용스님은 옛날의 선은 개인을 구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세계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오늘날은 세계가 좁아져서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세계성을 띠므로 세계의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개인도 안심하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용스님의 자비관은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개체도 그것을 성립시키는 전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개체를 말할 때 전체는 본래 그 속에 있고, 전체라고 할 때 개체는 본래 그 속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사람은 나 자신, 우리 집단, 우리나라라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이 참사람이 추구하는 자비이다.**

이처럼 서용스님의 자비실천은 한 개인의 공덕이나 업에 머물지 않는다. 세계 문제의 해결로서 선수행을 강조하고 있듯이, 스님의 자비실천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통한 새역사 창조**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이를 위해 스님은 모든 사람이 참사람으로 혁신되기를 기대하며 참사람으로 행복하게 함께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참사람서원을 제시하며 결사문을 끝맺고 있다.

첫째, 무상무주(無相無住)의 참 나를 깨달아 자비생활(慈悲生活)을 합시다.

둘째,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여 세계인류가 평등하고 평화스럽게 사는 역사를 창조합시다.

셋째, 자기와 인류와 생물과 우주가 영원의 유일생명체(唯一生命體)이면서 각각 별개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서, 집착함이 없이 진실하게 알고 바르게 행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세계를 건설합시다.<sup>32)</sup>

이처럼 참사람 혁신과 참사람들의 자비실천을 위한 참사람결사운동은 현대사회의 무절제한 욕망과 경쟁 추구,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혼란을 극복하려는 사회운동이다.

31) 서용, 『절대현재의 참사람』, 불교영상회보사, 1988, 65쪽.

32) 위의 책, 156쪽.

## V. 맺음말

이 발표문에서는 서용스님의 참사람 사상과 참사람결사운동을 ‘고집멸도’의 논리구조에 따라 분석하였다. 서용스님은 현대사회의 고통 인간성의 파괴로 인한 ‘위기’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위기의 발생 이유(집)는 현대물질문명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대물질문명에 의한 인간성 파괴를 회복할 수 있는 치유방법으로 선수행과 이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킨 참사람결사운동을 제시하였다. 서용스님이 주창한 참사람과 참사람의 자비실천은 인간성이 회복된 상태, 즉 멸의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논리구조에 따라 서용스님의 사상과 실천을 돌이켜보면, 구체적인 실천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참사람결사는 출범 이후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무차선회(無遮禪會) 봉행, 두 번째는 학술대회, 마지막은 서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수행프로그램이다. 수행프로그램은 간화선을 토대로 구성되었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서용스님은 참사람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화하기 위해 2002년에 ‘참사람수행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사람수행원을 거점으로 참사람 수행과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참사람운동의 조직과 확산, 참사람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참사람 복지에 이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용스님은 2003년 12월 13일에 입적하여, 이 계획이 완수되지 못했다. 이후 참사람결사운동은 제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을 뿐이다.<sup>33)</sup> 발표자도 서용스님과 실업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기반으로 ‘참사람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사람 사상과 참사람결사를 사회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모두(冒頭)에서 언급했듯이, 복합위기로 이야기되는 오늘날 서용스님의 참사람결사운동은 불교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백양사에서 ‘고불총림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에서 서용스님의 참사람 사상 연구와 실천방안 모색 등의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극복상태라는 의미를 모두 지닌 ‘참사람’과 참사람의 자비실천의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한다.

33) 미산, 「진정한 자비의 실천과 선불교 자비행법의 모색」,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운주사, 2015, 178-179쪽.

## 참고문헌

- 미산, 「진정한 자비의 실천과 선불교 자비행법의 모색」,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운주사, 2015.
- 매일경제신문사특집부, 「서옹 큰스님 : 인간의 참모습을 찾아야 이 혼란이 극복됩니다」, 『필동정담』, 매일경제신문사, 1990.
- 서옹, 『임제록(연의)』, 임제선원, 1974.
- \_\_\_\_\_, 『절대현재의 참사람』, 불교영상회보사, 1988.
- \_\_\_\_\_, 금강 편, 『(참사람결사운동 세미나)참사람의 향기』, 도서출판 고불, 1988.
- \_\_\_\_\_, 『고불총림 백양사』, 정보문화센터 첼린컴, 1996.
- \_\_\_\_\_,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고불총림 무차선회’ 자료집』, 1998.
- \_\_\_\_\_, 『참사람의 향기: 서옹상순 대종사 1주기추모집』, 백양사, 2004.
- \_\_\_\_\_. 박보하(사진), 『물 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 서옹 큰스님 선 이야기』, 다른세상, 2011.
- \_\_\_\_\_, 『서옹스님의 임제록 연의』, 아침단청, 2012.
- 오종만(금강), 「西翁石虎의 참사람사상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16.
- 한승원, 「광야에 우뚝 선 참사람 : 서옹스님」, 『스님의 맨발』, 문학동네, 1998.
- ‘[산중휴담](18) 서옹스님(백양사 방장)’, <한국경제> 2001.11.29.
- ‘[가까이서 뵈 큰 스님] 서옹스님’, <현대불교> 2002.1.23.

## 제2주제발표

## 제6차 봉공학술대회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돌봄의 개념: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차명희(서강대학교)

**<전개 방향>**

- I. 돌봄과 복지국가
- II. 우리나라 돌봄의 문제
- III. 돌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 IV. 돌봄 문제 해결의 지향점

## I. 돌봄과 복지국가

### 1. 우리나라 경제:

2022년 현재 1인당 국민총생산 (GDP, OECD국가 중 22위)

### 2. 1980년 이후 신 자유주의: 양극화가 심화

### 3. 2008년 세계경제위기

-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인류의 대안 아님
- 복지국가가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대



## 4. 복지란?

### 1) 용어 처음 사용:

영국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이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에서 나치 독일을 전쟁 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규정하는 데에서 유래

### 2) 베버리지: 영국, 애들리정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5대악 (빈곤, 무지, 질병, 불결, 나태), 사회보험 강조



### 3) 복지국가란?

- 공동사회가 그 사회의 시민들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최저 생활 기준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
- 복지를 보장받는다는 것
- 시민으로서의 지위. 권리임
- 헌법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우리의 보편적인 기본 권리

4) 탈 상품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  
(Esping-Andersen, 1999)

5) 에스핑엔더슨(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세 체제 >

- (1) 사민주의
- (2) 자유주의
- (3) 보수주의



## 6) 복지국가의 모델

에스핑앤더슨 복지국가모델	자유주의	보편주의	
		조합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탈 상품화 효과	낮음	중간	높음
계층화 수준	높음	중간	낮음
별명과 소속국가	앵글로색슨모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대륙모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딕 모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념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주장	하이에크/프리드먼	케인스	
대공황의 원인	화폐공급위축으로 인한 위기	수요부족에 따른 위기	
문제의 원인	정부실패 -> 정부역할 축소(작은 정부), 시장경제활성화	시장실패 -> 정부개입	
경제정책	공급중시(미시경제학)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수요중시(거시경제학) "수요를 창출해 공급을 살린다"...	
전략	노동시장유연화, 통화조절	완전고용, 소득정책, 재정정책	
복지	시장, 최소한의 급여	국가, 기본소득의 보장	
위험	금융위기	스태그플레이션	
정치세력	레이건정부, 대처정부	루스벨트, 영국 노동당정부	



## 유형비교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사회복지대상	저소득층, 요구호자 중심	비용자중심	전국민대상
급여범위	공공부조, 제한적 사 회보험	공공부조 및 확대된 사회보험	욕구에 따른 생활 수준
사회권의 인정	인정되나 낙인 존재	중시하지 않음(낙인 약함)	사회권 인식
계층화	심함	중간	약함
가족역할	가족, 개인책임	가족의 책임	국가책임
주요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 아	스칸디나비아국가

## 7) 다른 나라의 돌봄 복지 서비스

### 북유럽 모델

#### (1) 핀란드

➡ 노령연금. 보육비 지원에 추가한 아동 수당. 300일간의 임금80%의 실업 수당. 90%의 유급 병가. 상병 수당. 무상교육. 무상의료. 가족 간병 수당 제공

#### (2) 스웨덴

➡ 일부, 민영화 돌봄시스템을 실시하나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법을 시행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유인



## 앵글로색슨 국가 모델

#### 1) 미국

➡ 공적인 돌봄의 영역보다 자유시장 서비스 시장화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이 관리 됨.  
'빈곤의 굴레'에 빠지기 쉬움(노동임금보다 서비스상품 고가)

#### 2) 영국

➡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최초 도입  
그러나 시장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관리 감독 철저  
서비스 이용대금 직접지불 제도  
돌봄종사자의 HCPC 등록제도

## 보수주의 국가 모델

### 1) 독일과 이탈리아

- 핵심사업은 국가가 중점 관리
- 가족체계안에서 돌봄을 해결 (재가 급여를 우선)
- 노령 질병 장애 등 요양 급여와 보험에 의한 서비스

### 6) 우리나라의 돌봄의 유형

#### (1) 보수주의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채택
- 가사노동과 돌봄 역할- 여성

#### (2) 자유주의

- 돌봄의 문제는 민간영역의 시장에서 돌봄을 전적으로 해결
- 시장에서 돌봄의 서비스를 구입하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음
- 돌봄: 개인이 주 책임

## II. 우리나라 돌봄의 문제

### 1. 유교적인 가치관

2. 가족 안에서 이루어짐: 사회 구성원 삶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가족이 맡음

3. 여성(아내, 딸, 며느리)의 역할 강조):  
여성은 한국사회의 복지 체계 가운데 하나였음

4. 자유주의와 대륙 유럽의 보수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노선

## II. 우리나라 돌봄의 문제

5. 여성의 노동권 박탈
6. 빈곤의 재 생산
7. 소진(burn out)



여성이 결혼을 기피  
출산을 거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  
우리나라의 돌봄의 체계가 한계에 다다름

## II. 우리나라 돌봄의 문제

8. 소득 재분배와 사회복지정책은 ‘경제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림  
성장우선주의는 사회복지 발달을 지체하게 함
9. 남성 생계 부양자 경제구조: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  
인구구조, 가족구조의 변동을 초래
10.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균열  
1990년대 IMF경제위기  
2000년대 - 고용불안정, 저 임금 군의 등장

## II. 우리나라 돌봄의 문제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2인생계부양자 구조)  
→ 가족을 통한 돌봄 문제해결은 한계에 봉착
12. 산업화와 고령화  
→ 돌봄책임의 과부하  
국가의 개입과 책임은 여전히 최소 개입  
국가의 최소개입은 돌봄의 시장화, 가족 책임이 됨  
대다수의 가족은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 II. 우리나라 돌봄의 문제 (사례)

- 어린이 집 교사가 원생 A(6세)를 밀치고 때리는 영상이 공개
- 구석에 있는 남자아이의 머리를 쥐어박고 성에 안 차, 이번엔 뒤통수를 내리친다.
- 바닥에 쓰러진 아이는 겁을 먹은 듯 허둥지둥 바로 일어나고 보육교사는 아이를 밀어 구석으로 몰더니 쉬지 않고 다그친다.
- 남자 원생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다른 어린이들도 겁을 먹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이 보육교사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친구를 괴롭혀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나왔다고 주장.
- A군은 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 어린이 집 측은 A군의 가족들이 보육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리는 등 보복행위를 했다며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를 공개해 논란이 증폭(SBS방송, 2017.12.24)



### 13. 노인 돌봄의 문제

- 1) 노인의 욕구보다 기능적 건강상태만을 위주로 선별
- 2) 배우자의 건강, 자녀 분가 등으로 돌봄 욕구 불충분
- 3) 민간주도의 재가복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음
- 4) 이원화된, 지독 감독과 전달 시스템 문제

### 14. 장애아동의 돌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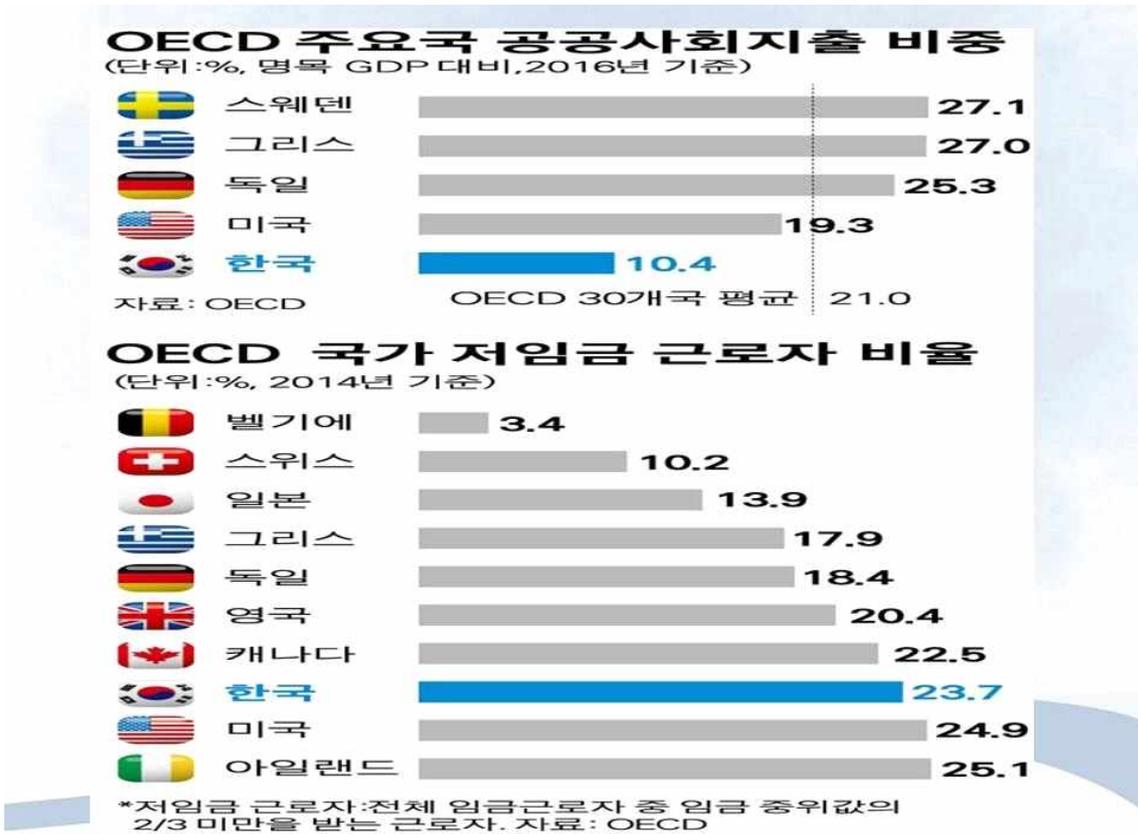
- 1) 장애활동지원제도는 만6살 미만 배제
  - 2) 그나마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은 한해에 3,012명
- 지극히 제한적인 돌봄이 이루어짐(한겨레 신문, 2016.8.23).

## 2. 복지 지출과 재원 부담

- ➡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  
국내총생산(GDP)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 ➡ OECD국가의 평균(2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북유럽의 스웨덴은 27.1%로 우리나라의 3배
- ➡ 우리나라의 복지는 저 부담-저 복지의 형태

<표1>복지 지출과 재원 부담(안종범, 2011) (단위: GDP대비 비중,%)

	저 부담-저 복지	중 부담-중 복지	고부담-고복지
조세부담률	25	30	35
국민 부담률	35	40	45
복지지출	14.7	18.5	22.4



## 돌봄의 프레임을 생각해보아야 하는 지점

제도적 상보성(制度的相補性)



### Ⅲ. 돌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 \* 1891년 부터 지속적으로 교황은 사회교리 회칙을 발표
- \* 노동자보호를 위해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를 발표한 이래 지속적으로 회칙을 발표
- \* 주요한 사회교리  
(인간존엄,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

1. 인간존엄: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를 강조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를 강조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이면 누구나 하느님을 닮아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박정우, 2016: 55).

### Ⅲ. 돌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 생활을 꼭 필요로 하기에 모든 사회 제도의 근원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 아니며서는 안 된다.” [사목헌장, 141항]

“질서 있고 풍요로운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인격을 갖고 있다는 원리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인간은 지성과 자유 의지를 갖고 있고 인간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지상의 평화, 8-9항]

인간의 존엄성 원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첫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역할은 인간의 구원을 위함이다.

### Ⅲ. 돌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 2. 공동선: 모든 인간의 자기완성과 공공복지를 추구

공동선이란 "개인 구성원이 더욱 충만하고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총화" [간추린 사회교리, 164항]

돌봄 제공자이든 돌봄 의존자이든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복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외 된 사람의 돌봄은 중요하다.

### Ⅲ. 돌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 3. 연대성: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연대를 통해 선익에 투신

연대성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을 느끼는 것이 아닌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로 인간과 사회집단 사이를 이어주는 복합적인 유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193-194항]

우리는 사회의 환경과 작용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하며 부정적인 착취와 억압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대성은 정의의 영역이다. 따라서 돌봄의 필요에 대한 응답의 부재 시에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돌봄의 영역에서 연대성이 필요하다는 당위가 발생한다.

### Ⅲ. 돌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 4. 보조성: 국가 개입의 제한과 원조 의무의 이중 책임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 개입의 제한을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시에는 국가 원조의 의무라는 이중 책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은 다른 모든 사회에 우선한다. 그리고 국가와는 독립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사회로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가에 선행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에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지녀야 한다. 만일 인간이나 가정이 국가로부터 도움은 커녕 손해를 보거나, 보호받기는 커녕 자기의 고유한 권리들을 침해당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바람직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태, 9항]

### Ⅲ. 돌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가정은 “국가로부터 적합한 보조와 효과적 수단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 [백주년, 49항]

“어떤 가정이 극심한 곤경에 처해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곤궁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 그러한 상황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타당한 일” [새로운 사태, 10항]

국가는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므로 국가정책은 개개인의 복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인간 존엄성과 자발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심현주, 2012: 16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탈출 22, 21-23).

탁월한 복음 선포자이시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특별히 가장 작은 이들과 동일시 하십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 받기 쉬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부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의 기쁨 209항]

어떤 교회 공동체든, 가난한 이들이 품위 있게 살고 아무도 배척당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노력이나 실질적인 협력을 하지 않고 안주할 때, 아무리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공동체 와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복음의 기쁨 207항]

### <재화의 보편적 원리>

“하느님께서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사목헌장 69항]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무수하게 많은 굶주린 사람들,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관심 42항]

## IV. 돌봄 문제 해결의 지향점

### 1. 돌봄의 패러다임의 전환

- 가톨릭 사회교리의 돌봄과 공공윤리가 지향하는 공통점은 하버마스(J. Habermas)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성의 형성에 기독교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은 점(김진호, 2014 : 74)과 가톨릭 사회교리는 돌봄의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의 속성을 지닌다.
- 그러나 공공성 논의에서 종교가 제시하는 윤리는 개인이 희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공 윤리와 차이가 있다.
- 개인의 희생을 전제한 돌봄이 아닌 진정한 '돌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김진호, 2014: 211).

###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2.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명제가 언제나 참이듯이, 모든 살아 있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커테이(Kittay)는 '인간 의존의 사실(fact of human dependency)'이라 부른다(김희강·강문선, 2010: 46).

- **의존의 정상성,  
비의존의 허구성**  
=> **인간 의존의 사실**

#### <돌봄관계>

- 인간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 인간을 만들어 가는 것

##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 돌봄 윤리

- **의존인의 의존성**
- **돌봄 제공자**의 의존성
  - 파생된 의존
  - 사회경제적 취약
- **Provider(조달자)**

##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 3. 평등과 정의 관점

#### ❖ 돌봄 의존자의 불평등

돌봄 덜 받는 아이들과

충분히 받는 아이들과의 불평등

=>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돌봄 불평등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간의 악순환

=> 사적 돌봄의 악순환

##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 평등과 정의 관점

#### ❖ 돌봄 제공자의 불평등

##### ◆ 간병인 최씨

. 보호자용 간이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는데다가 두 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해 피로가 가실 날이 없다.

하루에 6~7만원을 받는 최씨가 하루 세 끼를 밖에서 사먹기는 어렵다 보니 정상적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래서 최씨는 집에 갈 때면 일주일치 밥을 비닐봉투에 담아 얼려두었다가 그걸 녹여 끼니를 해결한다.

- 돌봄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 (대학신문2013.5.19)

=> 사적 돌봄의 악순환

##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 ❖ 평등과 정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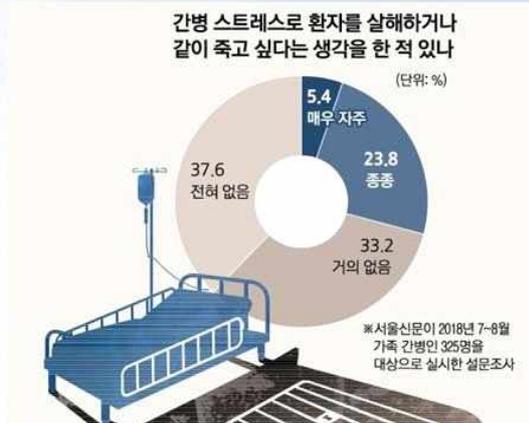
"돌봄이 여성에게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과정, 돌봄의 책임을 맡은 이후 사회화 가족으로부터 잊혀지고 배제되는 현실 등 돌봄을 둘러싼 현실은 부정의하다.

돌봄 정의 관점에서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독박 돌봄을 넘어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돌보는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돌봄연대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비혼 여성의 부모 돌봄 경험:

부정义的한 독박 돌봄을 넘어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 (석재은)

### 우리나라의 자화상



『사고로 양팔이 없는 남편을 40년 동안 돌봐오던 70대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는 40년 동안 남편을 돌봐왔으나, 건강이 점점 더 나빠져 남편돌봄이 어렵자 자기 처지를 비판해 왔다(SBS 2015.05/.1).』

**\*장애 남편의 돌봄은 아내의 몫인가? 정부는 아내의 돌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2. 「복음의 기쁨」 200항 →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려는 사회복지 사업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세상의 빈곤 문제를 풀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돌봄은 공공재이다.
- 치료와 경제논리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 돌봄 중심 패러다임
- 돌봄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인간적인 의무이다.

## IV. 돌봄 문제 해결의 지향점

- 돌봄 윤리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개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
- 돌봄 패러다임은 사회경제제도의 근본적 재구조화를 요구: '인간 의존의 정당성'과 '비 의존의 허구성'을 인정
- 가톨릭교회는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을 근거로 하여 연약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책임을 가르쳐왔음
- 돌봄의 공공윤리라는 공적 기반을 기초로 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지향을 요구

## IV. 돌봄 문제 해결의 지향

- 돌봄 제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저임금노동자→ 적절한 보상
- 돌봄은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윤리적 의무이자 가톨릭교회의 사랑 실천이지만, 돌봄 제공자를 돌봐야 하는 공공윤리는 국가와 사회의 동반 책임을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 봉공의 미래, 교육에서 찾 다

허 석  
(원광대학교)

## 봉공학술대회를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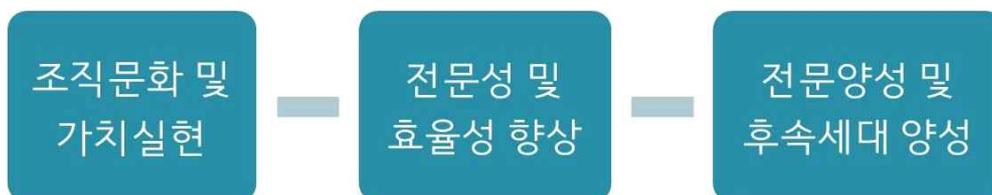
- 원불교가 그 규모나 교세에 비해 한국의 4대 종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 중 하나는 **한국사회를 향한 헌신적 봉공**에 있었음.
-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인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해방공간의 혼란한 시국 속에서 전재동포구호사업과 건국사상을 제공하며 한국사회 재건에 선봉 역할을 했다.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와 국제사회를 무대로 교단은 수많은 봉공의 역사와 업적을 만들어 왔음.
- 봉공활동의 3대를 결산하고, 4대를 기획,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

## 봉공학술대회를 맞아...

- 2017년 원불교중앙봉공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시작.
- ‘원불교교정원 공익복지부’, ‘원불교 중앙봉공회’, 그리고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행정 - 현장 - 연구 3방면)이 함께 원불교 봉공사상을 재정립하고 봉공회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을 10년 계획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의.
- 학술대회 자체가 소중한 교육의 장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
- 올해까지 7년에 걸친 봉공학술의 성과가 결실을 맺어가려면.... 사상에 기반한 ‘봉공교육’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때.

## 봉공의 미래, 교육에서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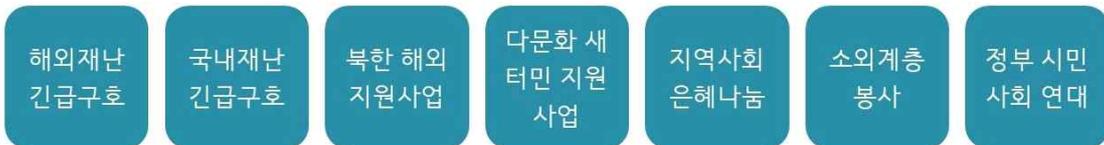
###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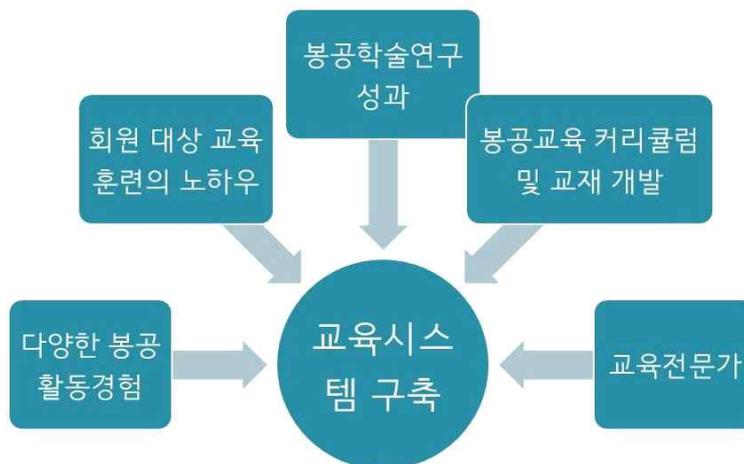
## 봉공과 교육의 병진

- 저축조합, 방언공사, 사무여한의 법인기도, 전재동포구호사업 등 교단사에 나타난 봉공의 맥(김일상, 2013)에는 외적인 봉공활동과 동시에 참여자들의 정신을 개혁하는 속깊은 마음공부 교육이 병진되었음

원불교봉공회 홈페이지 (사업안내)



## 봉공회 교육시스템 구축



## 봉공회 교육시스템 구축

2020년, 봉공회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안되어 2021년 개설한 '봉공학교'

- 각 교구봉공회 월례회를 통해 봉공교육 진행
- 중앙봉공회에 봉공학교를 설치, 봉공활동 및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봉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

*"봉공학교는 봉공의 의미를 교육해 봉공의 가치를 확산하고, 봉공의 방향인 원호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개설했다. 지난해 시작해 2주에 1회씩 11강을 진행... 봉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해가는 계기가 됐다. 단순히 봉사의 의미를 넘어 공동시장, 공동생산, 경제 등 관계와 관계를 통해 봉공회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2022.01.03일자 원불교신문)

## 봉공회 교육의 확장 가능성



## 예비교무 교육에 있어서 봉공교육의 위상과 실재



예비전무출신교육에관한규칙 제5조 (교육목표)

교학교과과정은 3번에  
서원교과과정은 1번에 중점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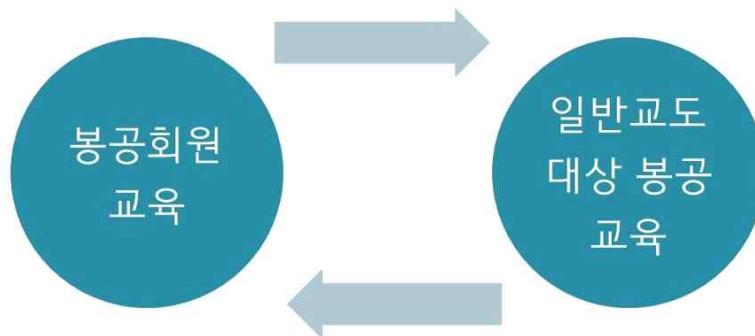
무아봉공 자세 확립에 관한 주요 활동

사상선

봉사활동

동아리

## 봉공회원들은 각 교당과 교구의 봉공교육 전문가



## 종립학교에서 봉공교육의 가능성

**건학정신** ... '물질을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진인교육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 양성을 건학의 기본정신으로 한다.

**교훈** ... 지 덕 겸 수 도 의 실 천

**교육목적** ...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 정신에 바탕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을 연구·교수하고 덕성을 함양하여 도의를 실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학술탐구	덕성함양	사회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이론의 창의적 연구</li> <li>○ 응용·실용능력 배양</li> <li>○ 국제화·정보화 능력 육성</li> <li>○ 전문문화 계승과 새로운 문화창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적 품성 수련</li> <li>○ 지도적 인격도야</li> <li>○ 민주시민의 의식 함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의 생활화</li> <li>○ 사회정의 실현</li> <li>○ 인류 공동체 의식 확산</li> </ul>

## 원광대학교

- 유일唯一한 행동 '무아봉공'
- 3대 교육목표 중 하나 '사회봉사'
- 도덕교육원(1999) 중심으로 운영
- 덕성훈련 기본과정(2001), 도의실천인 증제(2003)
- 도덕교육원 내 사회봉사센터 운영.
- 인력,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
-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사회과학대학 복지보건학부 등과의 연계 필요성.

## 학교현장에서의 봉공교육 접목 가능성

청소년 학교현장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요구와 교과목을 진행할 전문가 및 교육기관을 필요로 함.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적극 활용한 직간접적 교화모델 창출이 필요.



조미옥, 장여옥 (2023)

##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 공익심 없는 병을 치료하는 봉공

### • 공익심 없는 병에 걸린 현대사회를 치료하는 봉공

☞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를 살아갈 인류에게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病脈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 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 것을 크게 주의하신바, 그 병맥의 하나로 ‘공익심이 없는 병’을 진단.

☞ 100년이 흐른 오늘날, 공익심 없는 병은 이전에 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더 깊이 뿌리내렸고, 병증은 더 심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물질이 개벽된 이 사회의 특징이자 병든 사회의 한 병근인 ‘공익심 없는 병’에 대한 깊은 자각과 반성, 그 원인에 대한 통찰과 과학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현장의 문제(병)를 해결하겠다는 무아봉공의 서원과 참된 활동이 가능할 것.

## ‘무아’ 봉공, 그리고 전문역량

### ‘무아’봉공 無我奉公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써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 성의를 다 하자는 것이니라.”

각자의 마음 안에서 ‘지공무사’한 공공성을 발견하고 양성하는 자기봉공이 중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 교단 4대에는 봉공관련 전문 연구·교육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이를 통해 봉공회원들에 대한 지속적, 전문적 교육, 나아가 국내외 교단 안팎의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봉공활동의 새로운 활력 마련 필요.

# 감사합니다

## 4대를 향한 봉공과 봉공회

강 명 권

원불교 중앙봉공회

차 례

- I. 머리말
- II. 봉공과 봉공회
- III. 교단 4대를 향하여
- IV. 맺음말

### I. 머리말

평소 봉공회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김치나눔, 훈훈한 밥집, 다문화 지원사업, 결식아동청소년 식료품지원, 반찬나눔 등 많은 활동과 사업을 하고 있다. 봉공회에서는 올 연초부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생겼을 때 난민 지원 사업과 우크라이나 현지 지원 등을 하였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때, 의류 지원과 성금 모금을 통해 컨테이너 지원 사업들을 하였다. 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에는 수교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진리적 기도를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 하였다.

올해 국내에서는 예천, 괴산, 경북, 충북, 전북 등 넓은 지역에 걸쳐 수해가 많았다. 특히 장기간의 폭우와 장마로 인한 피해도 있었지만, 2002년 태풍 루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생겨났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장을 목도하였다. 또한 대전, 강릉 산불 등으로 재

난이 있는 곳마다 현장을 찾아서, 급식, 세탁 등 복구 활동과 다양한 지원 활동을 위해 현장을 찾아 함께 해주신 봉공회원들께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II. 봉공과 봉공회

### 1. 봉공(奉公)

봉공회가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협의회 등과 함께 활동을 하여서 ‘봉사(奉仕)<sup>1)</sup>나 ‘봉공(奉公)’이 같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봉사’에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원불교 출재가 교도들은 봉사라는 단어보다 종교적인 용어인 봉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원불교용어사전』에는 봉공을 “개인보다 전체 사회를 위하는 것, 곧 사사(私私)로운 이익보다 공익(公益)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봉공이라는 말은 무아봉공(無我奉公), 헌신봉공(獻身奉公), 멸사봉공(滅私奉公), 호법봉공(護法奉公) 등의 용어로 법문이나 교서에 나타나는데 앞의 세 단어는 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호법봉공 또한 법을 수호하고 공 또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제생의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물질과 정신과 육신을 다 바쳐 수호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중략)” 라고 하였다. 봉공은 원불교 교리 사대강령의 무아봉공에서 나왔으며, 원불교 출재가 교도들은 봉공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무아봉공의 생활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대강령 중 하나이면서 전체를 뜻하고 있는 무아봉공에 대한 종교적 절대적 가치는 대종사께서 열반을 앞두고 현재 원불교 정전의 모태가 되는 『불교정전』<sup>2)</sup>에서 밝혀주시를 “무아봉공이라 하는 것은 자기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는 사상과 자율방종하는 사상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써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몰아 말하자면 정각정행을 하고 지은보은을 하고 불교보급(불법활용)을 하는 것은 다 무아봉공을 하기 위함이니라”라고 한 것처럼,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을 하여서 무아봉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밝혀 준 것이기 때문에 원불교 출재가 교도들은 일상의 생

1) 『표준국어대사전』의 봉사의 정의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자발성, 공익성 등을 의미한다. 유의어로는 ‘봉공’과 더불어 ‘공헌’, ‘봉사’, ‘헌신’, ‘이바지’, ‘서비스’, ‘비조’ 등이 제시 되어 있다. 『원불교용어사전』에는 “(1) 남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 노력하는 것. (2)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헌신 봉공하는 것. (3) 다른 사람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4) 상인이 손님에게 물건을 헐값으로 파는 일.”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2) 1943년 3월20일(1943년 6월 1일에 대종사님 열반하심)에 발행된 교전.

활이 무아봉공의 생활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 2. 봉공회(奉公會)

사대봉공회는 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가 모든 사람들이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실천적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다. 대산종사는 “4대봉공회는 온 인류의 후원기관이며, 명실상부한 어른 종단으로 가는 데 이 일이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시며 인류의 영·육간 빈곤·무지·질병을 퇴치하여 뜨거운 정의를 건네고 세상을 골라서 원만평등한 낙원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세계봉공, 국가봉공, 재가봉공, 출가봉공을 하기 위해서 원기 75년 2월 15일에 중앙봉공회관 낙성봉불식을 거행 하였으며, 4대봉공회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역전 보화당을 후원기관으로 하여 세상과 인류를 위하여 제생의세의 길을 활짝 열어 나갔다.

대산종사는 원기 60년 12월 “사대봉공회를 실현하여 전 세계에 뜨거운 정의를 일체 생령에게 비추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귀의하기 마련이다. ... 전 생령, 전 인류를 향해 사은의 뜨거운 정의를 건네줄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은 부모국이 되고 만다.”

후원 기관이란 각종 교육 기관으로 자녀들을 나면 교육 걱정 없게 하고 또 우리 집 인재 육성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늙으면 편안히 안주할 양로원 기관과 무의무탁한 고아원 기관 등이며 또 四大奉公會(사대봉공회)의 기관을 세워 在家(재가) 出家(출가)와 전 인류의 영과 육의 무지, 질병, 빈곤을 퇴치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 名實相符(명실상부)하는 세계적 大(대) 宗團(종단)이 되는 것이지. 이 일이 바쁘구나. 앞으로는 서로 이 사업을 다투어 할 것 같다. 祖室(조실)서부터 먼저 오랫동안 기초를 쌓고 노력하라. 그러므로 나는 수년 전부터 준비를 시켰노라. 四大奉公會(사대봉공회)가 하나의 정식 기관으로 발족되기까지는 祖室(조실)서 준비하는 것은 비교적 對內的(대내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산종사 수필법문 54년 11월 2일 중에서>

사대봉공의 정신이 실현되어지는 날 이 나라와 저 나라,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의 국한이 터지고 오직 그 일이 이뤄지리라. 세계 과업으로 그 일이 남아 있을 뿐이요, 그 도 곧 실현되리라. <원기 50년 4월 26일 개교경축사 중에서>

사대봉공회의 조직을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원기 76년(1991) 12월 10일 중앙봉공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선임된 윤산 김윤중 중앙봉공회 회장과 세계봉공회 부회장 정재문교도, 국가봉공회 부회장 홍석원교도, 출가봉공회 부회장 윤여용교도, 재가봉공회 부

회장 김재백교도를 선임 하여 조직과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하였지만 실지로는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중앙봉공회관 설립과 후원기관인 역전보화당 관계인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확인 해보았는데, 봉공회 연혁에 나와 있듯이 중앙봉공회 회장 1인과 남자교무 1인이 배치되었으며, 후원기관인 역전보화당의 교금이 중앙봉공회로 가지 않고 총부로 들어갔으며, 사무실 운영비 일부만 지원을 받다보니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과 사람이 없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해 주었다.

도덕의 부모국이 될 수 있고, 어른 종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생의세의 큰 길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준비를 하였으나, 1대 회장과 2대 회장까지는 역할과 사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제3대 김혜전 봉공회장부터 지금의 봉공회 활동의 역할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참으로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다. 또 큰 변화는 초기에는 교단 차원의 사대봉공회 운영이 되었으나, 3대부터는 재가가 중심이 되면서 교단 중심적 운영에서 재가 중심의 운영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상, 중앙봉공회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중앙봉공회 연혁

서울교구 봉공회 10년사 참고

원기62년(1977). 03.	「봉공회」 발족결의 (제23회 중앙교의회)
원기68년(1983). 01.	보화당 역전한의원 사대봉공회 후원기관으로 선정
원기73년(1988). 03.	봉공회규정 제정 결의(제121회 임시수위단회)
원기73년(1988). 11.	1대 중앙봉공회장 취임(윤산 김윤중)
원기74년(1989). 05.	중앙봉공회관 건립 기공식(이리시 중앙동 3가 8번지)
원기74년(1989). 11.	봉공회 규정 확정(제3대 제5회 수위단회)
원기74년(1989). 12.	중앙봉공회관 준공식(대지169평 건평728평 지하1층 지상5층)
원기75년(1990). 02.	중앙봉공회관 낙성 봉불식
원기76년(1991). 04.	원불교중앙봉공회 단체등록 승인(제3대 14회 원의회)
원기78년(1992). 01.	김윤중 회장 정년퇴임
원기79년(1994). 02.	중앙봉공회에서 출가봉공회 분리(교단간부 합동회의)
원기79년(1994). 02.	2대 중앙봉공회장 취임(보산 고문국)
원기79년(1994). 05.	봉공회 공익부에 인수인계
원기82년(1997). 03.	제3대 제69회 임시 수위단회에서 봉공회규정 개정
원기82년(1997). 09.	중앙봉공회총회 준비 및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원기83년(1998). 07.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설립 봉고식
원기83년(1998). 11.	3대 중앙봉공회장 취임(장타원 김혜전)
원기83년(1998). 03.	정기총회 및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발기인 총회
원기83년(1998). 06.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법인 인가(보건복지부령제821호)

원기83년(1998). 03~11	「은혜의 무료급식」 운영(IMF 노숙인)
원기83년(1998). 04~11	「은혜의 쉼터」 운영(IMF 노숙인)
원기83년(1998). 08.	수해지역 구호활동(동두천, 파주, 광탄)
원기83년(1998). 06.	전국13개 지회 설립
원기84년(1999). 01~12	「은혜의 살림터」 운영(IMF 실직 모자가정)
원기84년(1999). 01~12	「실직자 쉼터」 운영
원기84년(1999). 07~현재	결식아동 식료품 지원(여름·겨울방학)
원기84년(1999). 08.	수해지역 구호활동(연천, 파주)
원기84년(1999). 08~09	불우이웃 도배봉사(117가구)
원기85년(2000). 03.	책자발간 「보은의 일터에서 은혜의 꽃 피우리」
원기85년(2000). 11~현재	환경미화원 목도리 전달
원기85년(2000). 11~현재	북한동포돕기 사업시작(담요, 아기기저귀감)
원기86년(2001). 02~현재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원기87년(2002). 03.	4대 중앙봉공회장 취임(소태원 김미진)
원기87년(2002). 02.	연해주동포돕기사업 지원
원기87년(2002). 03.	아프카니스탄 재난지역 후원금 전달
원기87년(2002). 11.	「IAVE」세계자원봉사자대회 운영위원
원기88년(2003). 11~현재	난치병아동 수술비 지원
원기88년(2003). 11.	원봉공회 후원금 모금 시작(cms)
원기88년(2003). 09~현재	원봉공회 소식지 발간
원기88년(2003). 09~10	태풍 「매미」 재해지역 구호활동
원기88년(2003). 11	외국인노동자 인권회복집회 지원
원기89년(2004). 09~현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시작(독거노인)
원기89년(2004). 09~현재	독거노인 식료품전달
원기89년(2004). 12~현재	새터민 쉼터 「평화의 집」 후원
원기90년(2005). 02.	해외재해재난지역 후원금 전달(쓰나미 지진해일 피해지역)
원기90년(2005). 08.	8.15한민족 대회 참석
원기90년(2005). 10.	「2005 김치엑스포」 개최(문화일보사 공동)
원기91년(2006). 01.	저소득 가정 쌀지원 (주)SK 후원
원기91년(2006). 06~07	인도네시아 지진재해 지역 긴급구호단 파견
원기91년(2006). 7.	수해지역 복구활동(강원도 인제, 평창, 영월)

위 연혁에서와 같이 3대 회장이 되면서 봉공활동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사대봉공 회중에 국가봉공회와 세계봉공회의 역할은 재난이 났을 때 지원 사업과 캄보디아 탁아소 지원 등으로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되었지만 행정 및 세계사업 전담을 맡아서 해야 하는 세계봉공회의 사무국이나 실무자가 없었다. 또한 대산중사께서는 사대봉공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자체적인 재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비 및 토지들을 준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교정원에서 수용 되지 않아서 교구 봉공회와 교당 봉공회에서 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 마련이나 사회복지법인 원 봉공회를 만들어서 후원을 받아 사업을 전개 하다 보니 세계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중앙봉공회에서는 2010년도 봉공회 총회에서 세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원봉공회’를 만들기로 결의를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법인이 많다는 교정원의 반대로 인해 법인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교단에서는 경산종법사로부터 원불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봉공회 대회를 하면 좋겠다는 논의를 하여 방안을 찾다가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재단이 필요하다고 논의하던 중에 세계봉공재단으로 발족을 결의 하여, **2014년 세계봉공재단을 설립** 하게 되었다. 본래 목적인 모금 역할만 하여야 할 세계봉공재단이 세계봉공회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위의 상황처럼 원불교 100주년 성업봉찬 사업비 기금으로 봉공재단은 물론이요 실무 및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업비가 충당되어졌기 때문에 세계봉공회가 아닌 세계봉공재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반면에 사대봉공회중에 유일하게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봉공회가 있다. 바로 재가봉공회이다. 우리 교단은 흔히 출제가 공동체라고 하지만, 출가봉공회에 비하여 재가봉공회는 아예 재정과 인력과 관심까지 없다보니 형식만 있을 뿐이고, 심지어 국가봉공회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제4대 1회 설계 최종자료에 보면 4대 1회 설계에는 공익복지부에서 ‘사대봉공회 정립과 활동 확산’을 위하여 정체성 정립과 재구조화 하여 사대봉공회의 참여 확대와 활동을 강화 한다고 하였으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한 상황이다.

### Ⅲ. 교단 4대를 향하여

#### 1. 영·육간의 봉공으로

대종사·정산종사·대산종사는 종교의 울을 넘고 무아봉공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여한, 이사병행, 영육쌍전의 정신과 자기 훈련 및 자기 공부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자기를 극복하고 봉공의 정신으로 자신을 훈련하여 **생활이 봉공, 봉공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봉공은 진리의 모습이다. 따라서 일원상의 신앙과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육간 봉공을 잘 할 수 있다.

원기102년(2017) 원불교 중앙봉공회 4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봉공은 활동하는 것이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대종사께서 사대강령을 통해서 정각정행하고 지은보는 불법활용을 해서 무아봉공하자는 것이라고 『불교정전』에 밝혀 준 것처럼, 일원상 범어

에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지공무사하고 원만구족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아봉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육근동작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순간이 무아봉공과 합일이 되는 일상이 되거나, 잡념으로 많은 일상에 따라 무아봉공의 삶이 되거나, 진리를 형식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봉공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봉공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무아봉공의 100%, 50%, 10% 등등의 삶이 되고 있음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무아봉공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무아봉공임을 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아봉공의 모습은 자리가타가 되어야 한다.** 나만 좋은 봉공은 봉공이 아니다.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좋아지고 있는지를 보면 무아봉공의 삶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일원상진리가 일상에서 묻어나오지 않고, 내가 공부심이 있다거나, 서원이 투철하다, 신심이 있다는 등 말로만, 행동으로만 한다고 해서 무아봉공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자인한다.

그래서 대중사께서는 일원상진리를 정각정행할 수 있도록 공부 하고, 행동하라고 하셨고 지은보은과 불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늘 신앙과 수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4대에는 대중사께서 이 회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봉공인으로 만들려고 한 그 뜻을 체받아 살아가는 봉공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원교육, 일원훈련으로 무아봉공의 일상생활이 되어 대중사의 참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사대봉공회 활성화 방안

대중사께서는 새 회상의 인간상은 봉공인이 되어야 함을 교리적으로 밝혀 주었다. 봉공의 삶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봉공회의 역할이라고 생각 된다. 대산종사는 ‘봉공하지 않는 종교는 산종교가 아니라’고 했으며, 사대봉공회가 세상 곳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심지어 이웃종교들도 사대봉공회를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세계 곳곳에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한 사대봉공회가 47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든 꾸준하게 정체성과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이 회자 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2017년 공익복지부 이인광교무는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원불교 봉공회 발전 10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사대봉공회가 어떤 조직이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

는지, 사대봉공회가 활성화 되면 인류에게나 세상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히 밝혔다. 즉, 사대봉공회의 바른 운영을 위하여 봉공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사대봉공회 실현이 일원상진리를 세상에 어떻게 바르게 나투는지를 이야기 하며 사대봉공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었다. 교단 4대 1회 설계에서도 사대봉공회 정립과 활동 확산에 대한 계획에 따라, 인식개선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정책과제 개발 그리고 홍보 참여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과 함께 시작한 봉공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 대산종사는 대중사와 정산종사의 뜻을 이어 받아 원불교가 실천적 종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봉공회관을 건립하고 후원기관 및 여러 재단들을 언급해주었다. 그러나 중앙봉공회가 50주년이 곧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방안을 고민하고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대산종사가 말한 사대봉공회의 취지문에는 교단 내적으로는 출가봉공회와 재가봉공회가 있고, 교단 밖으로는 국가봉공회와 세계봉공회가 있음이 밝혀져 있다. 교단 내적인 출가봉공회와 재가봉공회의 원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봉공회와 세계봉공회는 적십자사와 같이 누구든지 회장이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관계로 지금은 원불교 봉공회가 국가 세계 봉공 사업을 하고 있으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원불교 교도가 아닌 사람이 회장이 되어 국가와 세상을 원호하는 책임을 맡을 이가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

## 핵심의제와 실천과제

### 10 사은생태계 형성

자본주의 사회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사회 병맥을 교법을 통해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이기를 공동로, 분열된 사회와 계층의 갈등을 공생과 공동체로, 양육감식의 형태를 자리아타 체제로 전환한다.

#### 10-1 사은생태계 플랫폼 구축

- 10-1-1 교리 교육과 기본 체계 마련
- 10-1-2 교구·교당의 지립경제 수립과 실행
- 10-1-3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공동체 마련

#### 10-2 사람살리기 운동 전개

- 10-2-1 사은 교리 실천 인식의 진단과 개선 연구
- 10-2-2 생명·인권 존중 활동 참여와 활성화
- 10-2-3 커뮤니티 홍보 정책 강화와 확대

#### 10-3 지구살리기 운동 확산

- 10-3-1 원불교 예코 조직체계 기반 마련
- 10-3-2 원불교 예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 10-3-3 미래 원불교 예코 세대 인재 육성
- 10-3-4 원불교 예코 실천 운동과 홍보 확산

### 11-2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당 만들기

- 11-2-1 원불교 평생교육 연구와 (시범) 학교 운영
- 11-2-2 경제지립 교당 정책 수립과 운영
- 11-2-3 전문지식·생활 공유 체계와 인재 육성

### 11-3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당 만들기

- 11-3-1 배움공동체 형성과 장학사업 전개
- 11-3-2 공익사업 장려 활성화

### 12 사대봉공회 정립과 활동 확산

일원대도와 삼동윤리를 바탕으로 인류의 빈곤·무지·질병·재해로부터 평화 인락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봉공의 정체성 정립과 재구조화하여 사대봉공회의 참여 확대와 활동을 강화한다.

#### 12-1 봉공의 정체성 정립과 인프라 체계 조정

- 12-1-1 인프라의 재구조화
- 12-1-2 인식 개선 교육과 역량강화

#### 12-2 사대봉공회 정책 심화와 활동 강화

- 12-2-1 활동 정책과제 개발과 활성화
- 12-2-2 홍보 및 참여 확대

### 사대봉공회 취지문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일원대도에 바탕하여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 하신 정산 종사님의 최후 유촉을 받들어 시방세계 일체생령이 본래 같은 포태의 동기형제임을 서로 깨달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영육간의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재해로 신음하는 동포가 없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두루 평화롭고 넉넉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살기 위하여 다음의 사대봉공회를 결성하고자 그 횃불을 드는 바이니, 전 세계의 나라 나라와 마을 마을의 모든 동포 형제는 다 같이 함께 공맹(共盟)하고 대동 결연하여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하루속히 평등 원만한 세계를 이룩하는 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다 음

1. 출가봉공회
  - (1) 전무출신 본인에 대한 원호
  - (2) 전무출신 사가에 대한 원호
2. 재가봉공회 : 재가교도에 대한 원호
3. 국가봉공회 : 국가 민족에 대한 원호
4. 세계봉공회 : 세계 인류에 대한 원호

### 1) 사대봉공회 조직의 정비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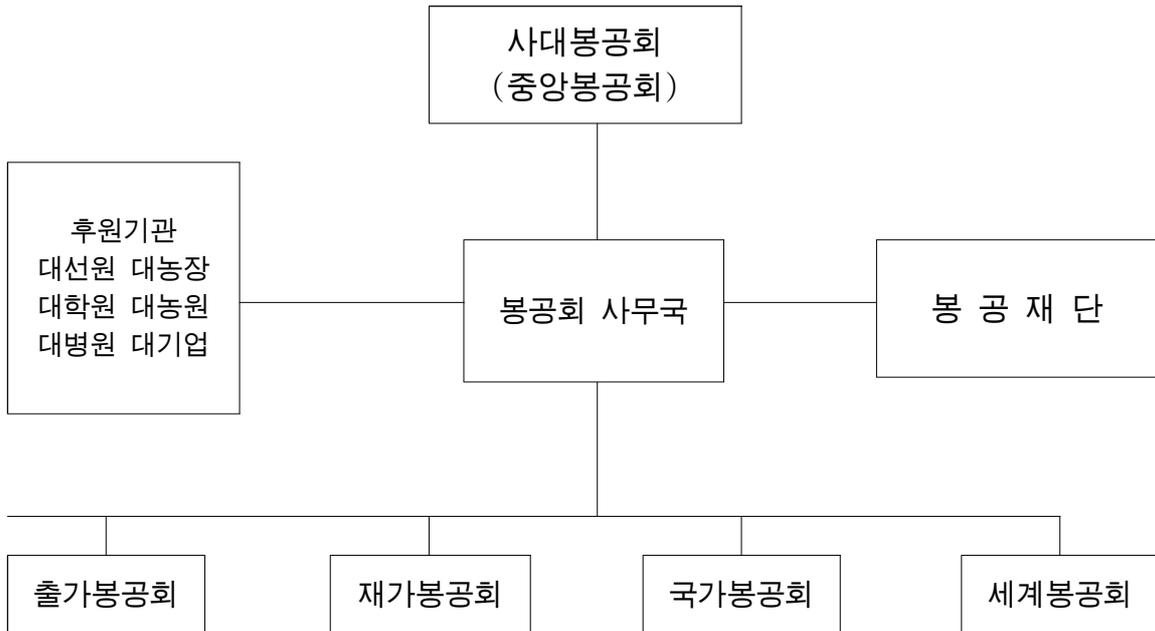
대산종사는 원기 55년 신년법문으로 ‘온 인류가 서로 잘 사는 길’을 말하면서 온 인류의 후원조직인 사대봉공회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류 개개인과 각 기관마다 자립과 자력을 세우는데 선도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인류의 영과 육의 질병, 무지, 빈곤을 구제하는 후원이 되도록 해야 인류가 서로 정의가 건널 수 있다”고 하여 인류의 후원조직인 사대봉공회가 빨리 완성되어야 할 것을 강조할 만큼 사대봉공회 조직의 정비와 그 활성화가 시급하다.

또한 대산종사는 사대봉공회의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리에 바탕 된 봉공인이 있어야 하고, 원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기관이 있어야 하고, 꾸준히 지원해줄 수 있는 재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오대 재단 중에 봉공재단을 두어 잘 운영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말하였다. 그리고 봉공회는 장차 공익복지부에도 두지 말아야 하고, ‘봉공원’이라는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봉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하는 공부인, 일상이 봉공이 되는 공부인, 활동하는 공부인으로 자신이 거둬낼 수 있도록 까지 대자비의 은혜를 내려주었지만, 조직이 운영이 되기도 전에 소태산대종사 탄신 성업봉찬에서는 봉공분과 사업으로 은혜심기운동본부가 생겨나서 사대봉공회와 같이 대사회국가세계사업을 지원 하는 형

식이 되어 둘로 나누어지는 상황으로 전개 되면서 사대봉공회의 역할이 나누어졌다. 또 다신 원불교백년성업에서 세계봉공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나누어지는 바람에 사대봉공회의 조직은 교단적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누어지고 약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대산종사께서 말씀 하신 봉공원도, 공익부에서 2017년에 발표했던 원불교 봉공회 10년 발전 계획도, 교단에서 발표했던 4대 설계 계획안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6년과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지원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이슬람교의 모하메디아 단체는 봉공회와 마찬가지로 교단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 단체는 활동을 후원해주는 후원기관들과 20여개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병원, 자선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과 다양한 후원 사업들을 전개 하고 있었다. 당시 봉공회가 꿈꾸던 봉공원 형태의 모습을 모하메디아 단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사대봉공회 조직 구상도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사대봉공회 조직 구상도



위의 구조가 4대를 열어가는 방안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보강하여 2024년(원기109)부터 시작하는 4대를 시점으로 하여 대산종사께서 구상했던 사대봉공회

가 바르게 잘 정비 되고 활성화 되어 대중사계서 이 세상에 펼치려던 대낙원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봉공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 2) 재가 봉공회로 새로운 교화를

정산종사 회갑 때 출가교역자들이 아플 때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워 전무출신 요양대책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시봉금 등으로 전무출신 요양대책인 ‘법은 재단’을 설립하게 하여 출가들의 원호 사업을 한 바 있다. 대산종사도 교단이 출가 봉공을 책임지고 준비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셨다. 교단에서도 출제가 교도들의 덕분으로 많은 원호를 받고 있지만, 재가교도를 위한 원호 사업은 교단적으로 책임지기 보다는 각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교단은 교리를 통한 마음공부로 원호 사업을 하거나, 각 교당에서 애경사가 있을 때 봉공회나 교당에서 원호 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원기 45년, 회갑에 앞서 당부하시기를 [금년 내 회갑에 대비하여 각지에서 여러 동지들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 내가 대중사계 일찌기 이러한 인사를 받들어 드리지 못하였고, 초창기 모든 동지들에게 그러한 인사를 드린 바 없거늘 어찌 나만이 이러한 인사를 받을 것이며, 나는 지금 병중에 여러 동지들의 알뜰한 정성을 받고 있으나, 각처에서 혈심 노력하다가 병약한 전무출신 동지들에게는 아직 이에 대한 교중의 재원이 서 있지 못하여 때로 내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거늘 어찌 나의 대우만을 더 받을 것이며, 본교의 창립 정신과 예전 정신이 허례 낭비를 없애고 검소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요, 출가 수행자가 이러한 일에 일반 사회에 시범이 되어야 할 것이어늘 만일 이에 분에 넘치는 바가 있고 보면 이것이 다 도리가 아닌 즉 기어이 정의를 표하고자 하는 동지들은 전무출신 요양 대책의 재단 하나를 세우는 일로 나의 회갑을 기념하여 준다면 이것이 대중사의 근본 정신과 그 법은에 보답하는 도리도 될 것이며, 전무출신 전체가 편안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또한 내 마음을 편안케 하는 참 인사도 될 것이니, 이대로 하여, 적당한 날짜에 우리 예전에 준하여 간소한 의식만을 갖추어 뒷날의 법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정산종사 경륜편 26장>

출가자는 교단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헌신봉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듯, 재가교도들에게도 출가만큼은 아니더라도 교단이 어느 정도 책임지고 원호 사업을 한다면 교도들은 더 정성을 다하여 교단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본 발표자의 교당 근무 시절 경험을 되살려 보면, 교도들의 집안에 이웃종교를 믿고 있

는 가족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원불교에 대한 믿음을 강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진리는 하나라는 가르침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자력이 있어 종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 큰 걱정이 없다가도 나이가 들어 건강도 문제가 되고 자력생활도 어려움이 생겨 자녀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집안에 이웃종교를 믿던 자녀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종교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그 동안 몇 십 년을 동고동락 하면서 지내던 법형제들과도 잘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열반에 들 때도 가까운 친우들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또 어떤 자녀는 부모랑 멀리 살게 되어 자주 뵈 수도 없었고, 심지어 부모가 열반에 들어 제사도 잘못 지내는 등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부모 생전에 교당에서 세심히 살펴주기도 하고, 열반시에는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주는 모습에 감사를 느낀다고 하면서 교단이 있어 안심을 얻었고,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손자 손녀들과 더 열심히 교당에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봉공회에서는 올해 계획만 세웠던 재가교도 원호 사업 중에 하나를 내년에는 반드시 실행할 계획이다. 발표자가 교당이나 기관, 그리고 봉공회에 와서도 요청 받았던 내용이 있다. 그 중 어떤 교도는 집안에 갑자기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정신을 챙기고 잠시 쉬고 싶으면서 혹시 설만한 교당이 있는지, 아님 갈만한 장소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편하게 지내거나 조용히 쉴 수 있는 교당들이 없어 만덕산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 번 제주국제훈련원을 가게 되었는데, 훈련원 안에 펜션 같은 공간이 있는 것을 보고 다음에는 저곳으로 소개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기본적인 심사는 하겠지만, **원불교 교도이면 누구나 전국에 있는 원불교 훈련원 중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숙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앞으로 봉공회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재가교도 원호사업 방안들을 찾아, 교단이 책임 질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점들을 모색하여 재가 교도들과 가족들에게 교단이 책임져 준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되면, 그들은 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할 것이라 생각 된다.

사대봉공회 하나하나가 모두 원호 사업을 해야 한다. 또한 재가봉공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비록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행을 못하고 있지도 교단에서도 정책적으로 재가교도 원호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즉, 4대에는 교단의 재가교도를 위한 원호사업이 다양한 방면에서 시행되어 교단과 교도가 상의상자(相依相資)·상생협력(相生協力)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 3) 국가·세계 봉공회는 영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얼마 전 교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익산으로 가는 차속에서 요즘에 인공지능 분야의 AI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책 한권 분량의 PDF 파일을 AI에게 주고서 몇 페이지로 요약해 달라고 하면 요약을 해 주고, 다시 몇 장으로 해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해당 분량으로 요약해준다고 한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AI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기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파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들었다. 앞으로 전문 분야만 하는 쪽은 더욱 좋아지지만 기본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현재 삼성에서는 갤럭시 핸드폰에 AI 탑재를 준비 하고 있고, 애플도 이제 AI를 준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핸드폰에 AI가 탑재가 되면 세계 모든 사람들과 통화를 할 때 번역을 거치지 않고 소통이 자유로워지게 되어 통역사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어쩌면 코로나처럼 세상에 많은 변혁과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어가 자유로워지면 세상은 소통의 자유로 세상과 문명이 더 빨리 발전되어 질 것이나, 반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낙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 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마치 지금 세상의 빈곤의 차이나 무지의 차이에 힘겨워 하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빈곤·무지·질병보다는 정신의 빈곤·무지·질병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은 국가, 세계봉공회는 영육간에 빈곤·무지·질병·재해·전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원방안보다는 육신적인 안정을 더 치중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신의 안정은 물론이고 정신의 위안을 주는 방법을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적십자사나 재해구호 협회에서는 그런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프로그램과 교육장, 훈련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봉공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 자아 안정을 통해 현실의 불균형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만 된다.

### 4) 봉공 훈련원

국가대표 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 실력을 더 키워내기 위하여 선수촌에서 정신적·육체적 한계를 극대화 시키고 있듯이, **사대봉공회도 봉공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원이 필요하다.** 지금의 우리 교단에는 교무훈련과 교도훈련을 위한 훈련원이 만들어져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적십자사나 재해구호 협회가 재난 교육장과 훈련장을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봉공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훈련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봉공회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일이다. 여기에는 교단적 힘이 실려야만 가능하다. 대산종사께서 사대봉공회를 만들고 중앙봉공회관을 만들 때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원불교 출가·재가교도들이 천지 허공에 진리가 존재 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다들 인식 하고 있지만, 안이비설신의 육근 동작 하나 하나에 봉공을 하고 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활동으로 나투어야만이 봉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동지와 이야기 한마디 할 때도 무아봉공의 생활인지 점검해보면 봉공 아님이 없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차를 타거나 물 한잔 마실 때도 진리를 실지 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실천을 하는 것이고, 일원상진리의 삶이 되고 있으면 봉공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 세계와 인류에게도 정신적 개진과 육신의 실천을 알려주는 훈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5) 재난 매뉴얼과 네트워크

5년 전만 해도 산불이 나면 주간에는 불을 감시하면서 불의 방향에 따라 준비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야간에는 감시 부분이 부족해서 대응하기가 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드론을 띄워서 야간에 불은 끄지 못하더라도 불길의 흐름에 대응력이 좋아 지고 있다고 한다.

원불교 공익복지부와 원불교 봉공회에서는 그 동안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만 한다가 2020년도에 수위단 공익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재난 상황을 종합 정리하여 교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는 다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갈수록 재난에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을 하고 있으나 2-3년 만에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새롭게 교육이 되다보니 매번 재난을 만나게 되면 허둥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재난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만큼 작게는 개인부터 시작하여 교당, 교구, 교단차원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안성의 수해와 동해의 산불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때에 구호나 심리지원, 의약품 지원 등을 함께 협업 할 수 있는 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야별 맡아 운영을 하여 좋은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앞으로는 더욱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지역별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재난만 아니라 지원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지 할 것이다.

## 6) 공동시장 개척과 경제자력 양성

봉공회는 그 동안 다양한 활동 및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력을 만들어 왔다. 그 방안으로 초창기에는 참기름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장례식장 상복을 만들어 팔기도하여 사업 수익이 좋았다. 교단적으로 하겠다고 하여 교단에 사업장을 주기도 하였고, 지역바자회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여 왔다. 그 와중에서 전국 각 교당에서는 바자회 물품을 만들었던 것을 교당에서 판매를 하여 교당봉공회 수익으로 만들어 봉공사업의 경제부분을 담당해 왔다.

또한 각 교구별로 봉공은혜마트를 만들어서 중고 물품 판매로 자원순환의 터전을 만들기도 하여 왔다. 중앙봉공회에서는 지난 원기106~108년에 자력경제를 봉공회 50주년까지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이에 상시봉공은혜마트가 아닌 인터넷속 봉공은혜마트를 구상하였다. 단순한 인터넷마트만 아니라 대산종사께서 말씀 하신 세계평화 제언 3가지 중에 하나인 세계공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시초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여 왔다.

대산종사께서도 후원기관 원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교도들의 후원금으로만은 할 수가 없으니 대공장 대농장 등 후원기관을 만들어 기업윤리가 아닌 공도금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여 세상을 후원 하는 사대봉공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환경이 부족(물품과 이용자가 적음)하여 자력경제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에 따른 해결 과제가 많다. 4대에는 대산종사의 세계평화의 길 3대 제언인 세계공동시장을 봉공은혜마트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력경제 바탕을 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 IV. 맺음말

2023년 9월 16~17일 태안에서 한국자원봉사 협의회와 같이 은둔 청년들이 캠핑 전문가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 하면서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봉공회에서는 밥차를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여 그들과 함께 나눔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200여 명의 청년들은 자신과 같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고 푸근함을 느꼈고, 다시 사회로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각자 부푼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또한 지난 11월 8일에는 서울에서 대부분 농촌이나 어촌 시골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무릎관절이 고장이 나서 걷기도 힘들고 생활이 어려워도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만남의 장이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관절 수술을 해주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이성태 사무총장이 ‘노인희망걸음봉사단’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여 발대식을 하였다. 노인 천만명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은 현저하게 부족하다. 또한 수술이 필요한 노인들을 찾아서 그들이 희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곳곳에 필요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이 있다.

종교는 어려울 때 더 많은 활동과 손길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손길을 나누고 도움을 주다보면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부딪힘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마음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나타날 때 정말 내가 무아봉공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울 때 대중사를 비롯한 선진들의 무아봉공의 정신을 떠 올리며 믿음과 수행의 마음으로 역할을 다하는 봉공인이 되도록 다짐해 본다.

<참고자료> 2019년 제3회 봉공학술세미나(원불교 2세기 봉공회 비전 III : ‘봉공’의 의미 재정립 III), 「원불교 사대봉공회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방향」(구형선 교무 발표 원고 중)

<표1> 사대봉공회 중 ‘대상’에 관한 법문

원기(서기)	주요내용
원기52년(1967)	인류의 영과육의 빈곤, 무지, 질병을 구제하자는 법문
원기54년(1969)	4대봉공회 첫 법문(출가, 재가, 국가, 세계의 빈곤, 무지, 질병, 재해 퇴치)
원기62년(1977)	이리역 폭발물 사건시 재난 구원에 체계적 활동 강조
원기65년(1980)	출가봉공회 빨리 키워라. 교역자의 후원문제가 심각하다 말씀하심.
원기66년(1981)	내년부터 봉공사업을 적은규모라고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그 사업으로 ①출생, ②후생, ③교육, ④결혼, ⑤특상으로 말씀하심.
원기78년(1993)	UR교당 기금 사용으로 사대봉공회 기금 사용하도록 함.

<표2> 사대봉공회 중 ‘전달체계’에 관한 법문

원기(서기)	주요내용
원기53년(1968)	사대봉공회란 봉공기관 설치, 조직, 운영하여 기관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구제
원기54년(1969)	대중사님께서 사업을 경영하실 때 '봉공'을 위해 '공익부'를 설치하셨음
원기54년(1969)	후원기관으로서 사대봉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하심
원기55년(1970)	교단의 4대 목표로 교화, 교육, 훈련, 후원(사대봉공회)를 말씀하심
원기58년(1973)	훈련원, 산업원, 봉공원은 대외사업이라 하심
원기60년(1975)	공익부장에게 사대봉공회는 완전히 독립하도록 하심(3.10)
원기60년(1975)	봉공회는 교정원 산하에 두되 부에는 소속하지 않고 독립 운영토록 함(9.6)
원기61년(1976)	8대사업회를 관장할 기관으로 7부, 1원, 1회를 말씀하심. 1회가 사대봉공회
원기61년(1976)	교단 6대사업화로 교화, 교육, 법은, 후생, 산업, 봉공을 말씀하심.
원기61년(1976)	18개 지부에 다 봉공회를 조직했나 확인하심.
원기62년(1977)	교단 8대 사업으로 교화, 교육, 훈련, 문화, 산업, 원호, 자선, 봉공을 말씀하심
원기62년(1977)	정해영국회의원 내방시 세계봉공회장하라고 하심
원기62년(1977)	총부 각교당과 기관에 사대봉공회 조직하라 하심
원기63년(1978)	사대봉공회 활동준비를 조실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하심.

원기(서기)	주요내용
원기66년(1981)	역전보화당을 사대봉공회 기관으로 확립 윤산, 주타원을 사무총장으로, 직평, 인철, 광정, 복환을 각 봉공회 실무책임, 성국을 총서기로 하여 사대봉공회를 정식 발족하라 하심.(1.17)
원기67년(1982)	서울에서 400명이 세계봉공회 원화단을 결성함.
원기68년(1983)	대봉공원(공익부)로 표현하고 계심.
원기71년(1986)	교단의 6대 사업으로 교화, 교육, 자선, 훈련, 생산, 봉공을 말씀하심.
원기75년(1990)	교단기관 확립방안에서 자선 - 대봉공회(사대봉공회) : 중앙봉공회로 표현하심
원기77년(1992)	각 국에 사대봉공회 두어 표현
원기78년(1993)	중앙봉공회 방향으로 기금을 가지고 독립하여 교단적 봉공활동하고, 역전보화당은 출가봉공회를 별립하여 전무출신 후생대책에 사용토록 함.

### <표3> 사대봉공회 중 '재원'에 관한 법문

원기(서기)	주요내용
원기52년(1967)	총부, 삼동원, 조실 비상금 저축해서 봉공회 사업에 쓸 것
원기52년(1967)	삼동성묘소 설치 공익사업 장려
원기54년(1969)	사대봉공회 발족 시급 자력으로 나가야 한다. 남의 힘 타력은 생각하지 마라.
원기55년(1970)	사대봉공회는 아쉽게 해서는 안된다. 이 사업만은 생각이나 문서에 일절 구애 받지 않도록 해라.
원기60년(1975)	세계봉공회 회사금을 활용하여 대지구입으로 일단 자산증식 하도록 해라
원기61년(1976)	삼동원 앞 도로 전방 6,000평 봉공회 자산으로 분할, 이리시내 변두리 대지 700만 원 상당, 전주에 500평 대지화한 땅, 양타원 700만원, 락산 1,000여평 대지 봉공회 회사
원기62년(1977)	금마면 소속된 4만평 속히 구입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유지사업회와 봉공사업회가 공동 운영토록 하라
원기64년(1979)	김해교당 주무 700평 대지 원불교에 귀의, 사대봉공회에 활용해라
원기65년(1980)	조실에 올린 모든 성금 크게 모아 봉공회에 내 놓을 것
원기68년(1983)	조실 시봉금은 봉공회 기금조성하여 다 내도록 하라
원기69년(1984)	시봉금 중 교단에 쓰고 저축된 금액은 모두 봉공기금으로 저축하라
원기70년(1985)	캐나다 교당구입에 봉공회에서 총당하라
원기71년(1986)	원창회 훈련에서 원창회는 총부생불불사, 해외개척불사, 사대봉공불사
원기78년(1993)	중앙봉공회는 본래기금으로 교단적 봉공활동으로 독립하고, 역전보화당과 약업사는 출가봉공으로 하라.